

농업·농촌경제 동향: 2002년 8월

2002년 9월 2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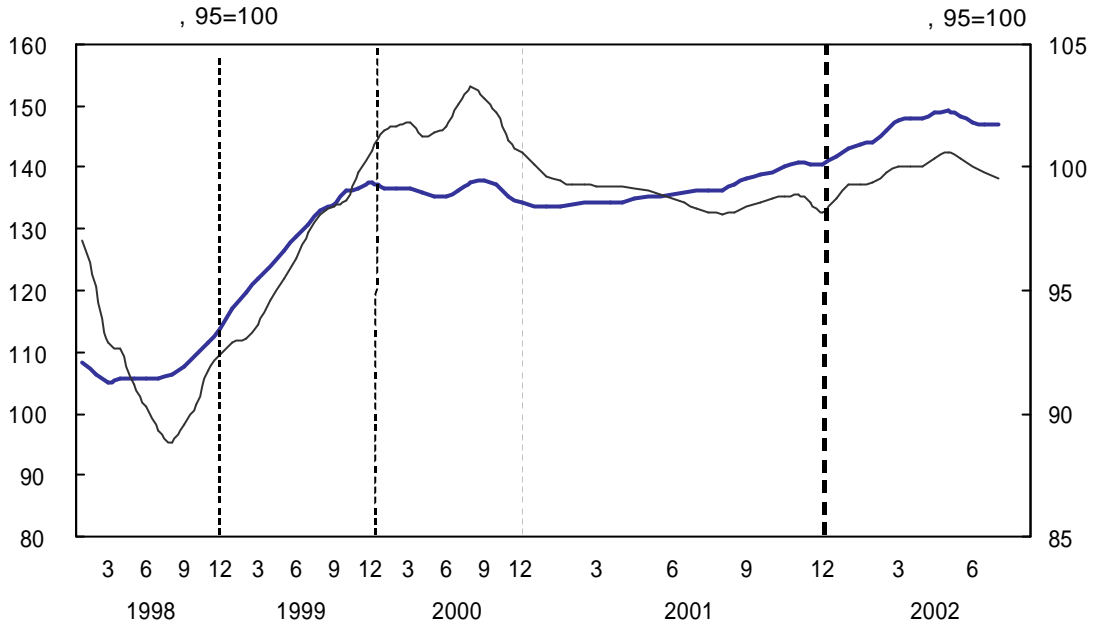
- I. 일반경제
- II. 농업·농촌경제
- III. 품목별 수급동향
- IV. 지역언론 보도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일반 경제

1. 경기동향

<경기종합지수>



<경기종합지수 변동>

	2002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동행지수 ¹⁾	99.4	100.1	100.1	100.6	100.1	99.6
전년동월대비(%)	0.1	0.9	0.9	1.6	1.4	1.3
선행지수	144.1	147.6	148.2	149.4	147.4	146.8
전년동월대비(%)	7.5	9.8	10.1	10.5	8.6	7.8

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의미
자료: 통계청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2개월 연속 하락)** 7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0.5p 하락한 99.6을 기록하여 2개월 연속 하락.
- **(선행지수 2개월 연속 하락)** 7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6p 하락한 146.8로써 2개월 연속 하락.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음.

2. 산업생산 및 소비

<산업생산 및 도소매판매지수>



<산업생산 및 도소매판매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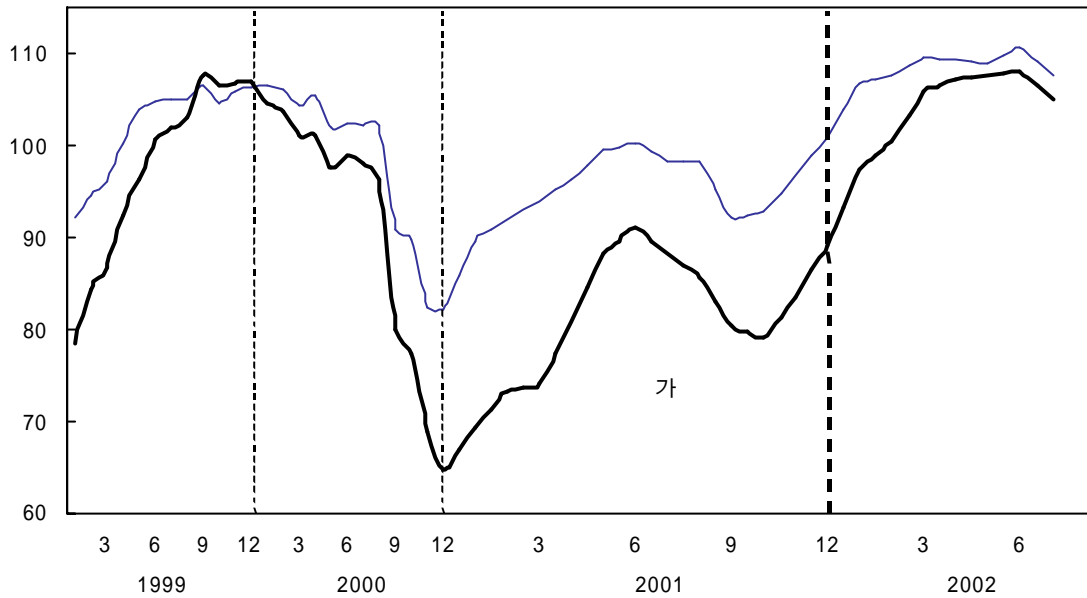
	200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¹⁾	164.3	157.8	163.8	166.8	167.6	161.6	164.6
전년동월 대비(%)	6.5	0.6	4.4	7.5	7.9	5.5	8.9
도소매판매	128.0	121.2	136.8	135.0	138.1	129.3	129.7
전년동월 대비(%)	7.3	8.1	8.3	7.8	7.5	4.1	6.6

1) 계절조정치, 자료: 통계청

- **(산업생산 상승세로 반전)** 산업생산은 6월 월드컵으로 인한 조업일수 단축으로 주춤했으나 7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 7월 산업생산은 반도체, 음향통신기기, 화학제품, 기타 전기기계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8.9% 상승한 164.6을 기록.
- **(도소매판매 증가폭 감소하였으나 상승추세 지속)** 7월 도소매 판매는 전 업종에서 판매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4p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6.6% 증가한 129.7을 기록하여 상승추세 지속.

3. 소비심리

<소비자 기대지수 및 평가지수>



<소비자 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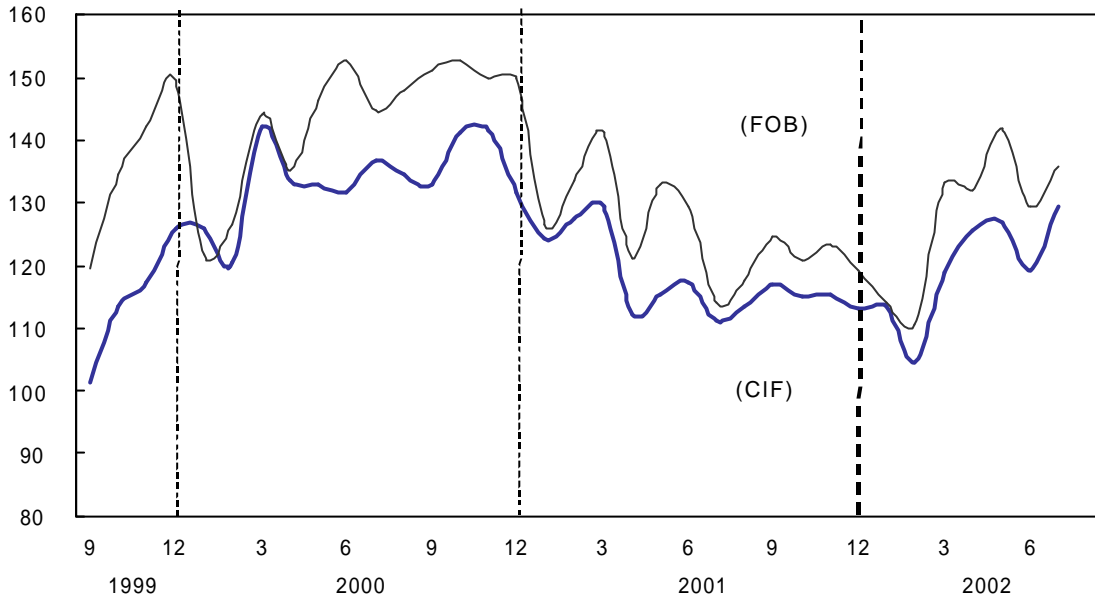
	200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평가지수	97.4	100.5	105.9	107.2	107.6	108.1	105.2
전년동월대비(%)	40.3	37.3	42.9	32.5	21.9	18.7	19.3
기대지수	106.7	107.7	109.7	109.4	109.1	110.6	107.8
전년동월대비(%)	19.0	17.1	16.6	13.6	9.6	10.3	9.6

자료: 통계청

- **(소비자 평가지수 상승세 주춤)** 7월 소비자 평가지수는 전월대비 2.9p 하락한 105.2를 기록하여 전년 11월부터 지속되던 상승세가 주춤.
- **(소비자 기대지수 다시 하락세로)** 7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전월대비 2.8p 하락한 107.8을 기록하여 6월 반등 후 다시 하락세로 반전함. 그러나 지수는 여전히 100을 상회해 6개월 후의 경제상황을 낙관하는 사람이 많음을 의미함.

4. 수출입 및 무역수지

<수출입 및 무역수지>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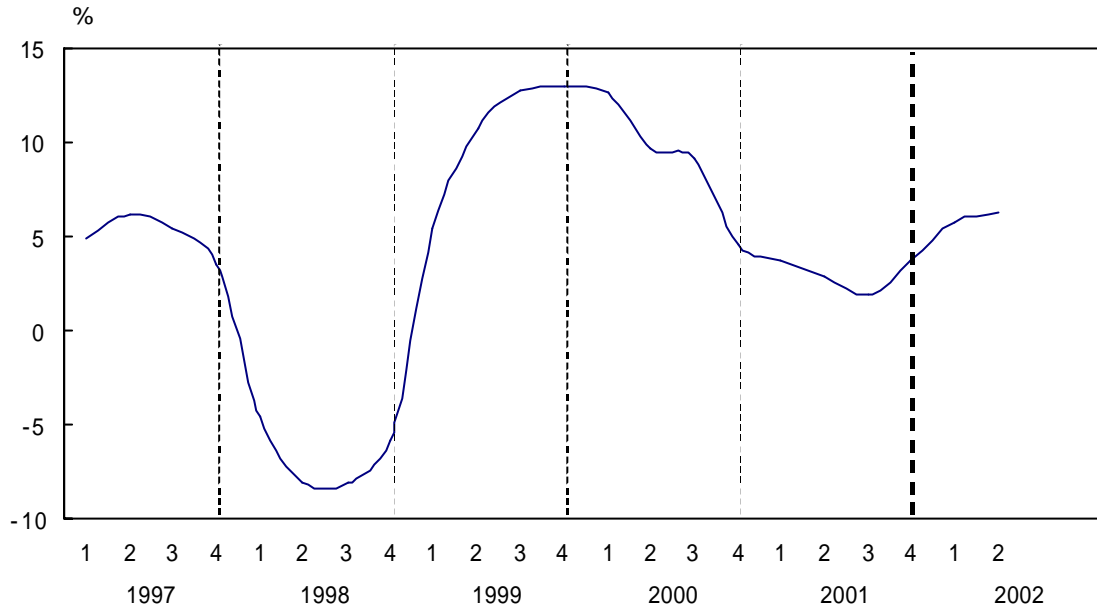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연간	1~7월	4월	5월	6월	7월	1~7월
수출	1,504.4	898.8	131.9	141.8	129.3	136.0	896.6
전년동월대비증감율	△12.7	△7.5	8.8	6.6	0.0	19.4	△0.2
수입	1,411.0	837.1	125.5	126.9	119.2	129.5	837.9
전년동월대비증감율	△12.1	△9.3	11.9	9.8	1.7	16.5	0.1
무역수지	93.4	61.7	6.4	14.9	10.1	6.5	58.7

자료: 관세청

- **(수출·입 모두 큰 폭 증가)** 7월 수출은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9.4% 증가한 136억 달러, 수입은 16.5% 증가한 129억 5천만 달러를 기록.
- **(7월중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3억 7천만 달러 증가하여 6억 5천만 달러 흑자 기록)** 금년 1~7월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한 58.7억 달러의 흑자 기록.

5. 경제성장 동향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경제성장률>

단위: % (1995년 불변)

	1999	2000	2001			2002	
			연간	3/4	4/4	1/4	2/4
GDP	10.9	9.3	3.0	1.9	3.7	5.8	6.3
최종소비	9.4	6.7	3.7	4.3	5.6	8.0	7.3
(민간)	11.0	7.9	4.2	4.8	6.6	8.4	7.7
투자	3.7	11.4	△1.7	△3.1	4.9	6.5	5.6
(건설)	△10.3	△4.1	5.8	8.2	10.7	10.1	4.1
(설비)	36.3	35.3	△9.8	△15.7	△3.1	3.2	7.4
수출	15.8	20.5	1.0	△4.1	△1.1	1.8	11.8

주: p는 잠정치 (한국은행)

○ (금년 2/4분기 실질 국민 총생산 전년동기대비 6.3% 증가) 2002년 2/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소비,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년동기대비 6.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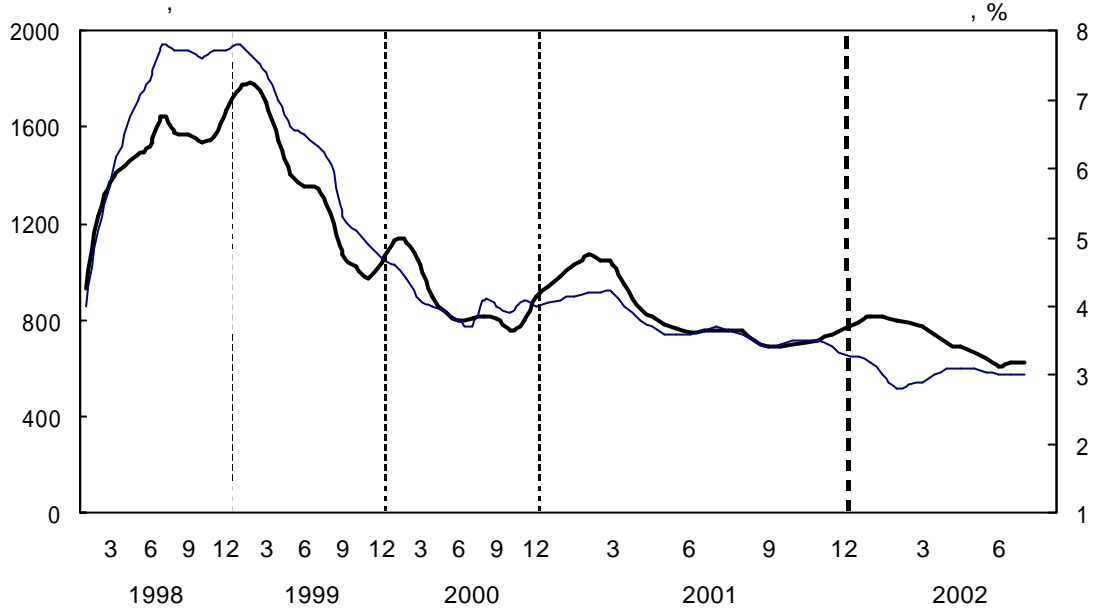
○ (경제성장이 원동력이 내수에서 다시 수출로 이동)

- 내수의 성장 기여율: 1/4분기(87.0%) → 2/4분기(49.9%)

- 수출의 성장 기여율: 1/4분기(13.0%) → 2/4분기(50.1%)

6. 고용

<실업자 및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1년	2002년				
	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 활동 인구	22,181	22,292	22,768	22,884	22,885	22,870
취업자	21,362	21,523	22,060	22,223	22,274	22,244
실업자	819	769	707	661	611	626
전년동기대비	△7.9	△25.7	△16.6	△15.3	△18.0	△17.6
실업률 (계절조정)	3.7	2.9	3.1	3.1	3.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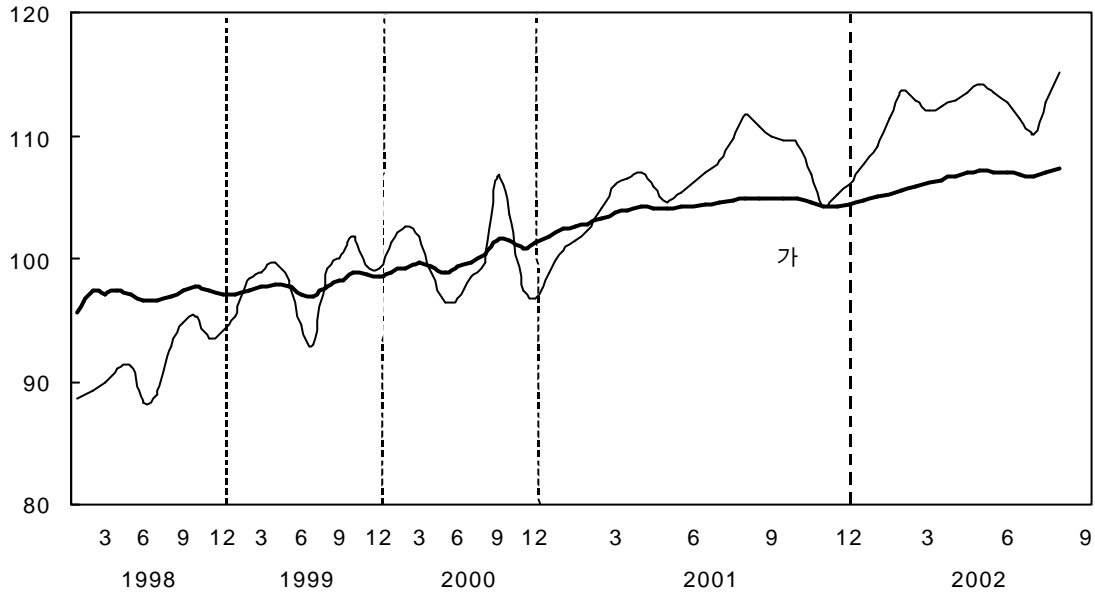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취업자 감소, 실업자 증가)** 7월 취업자는 농림어업, 제조업 부문의 취업 감소로 전월대비 5만명 감소한 2,224만 4천명을 기록. 실업자는 방학 중 재학생의 구직활동 증가로 전월대비 1만 5천명 증가한 62만 6천명을 기록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7.6% 감소.

- **(계절조정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 제조업 부문 조업감소, 재학생 구직활동 증가 등을 고려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0% 수준 유지.

7. 물가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 및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단위: 지수(20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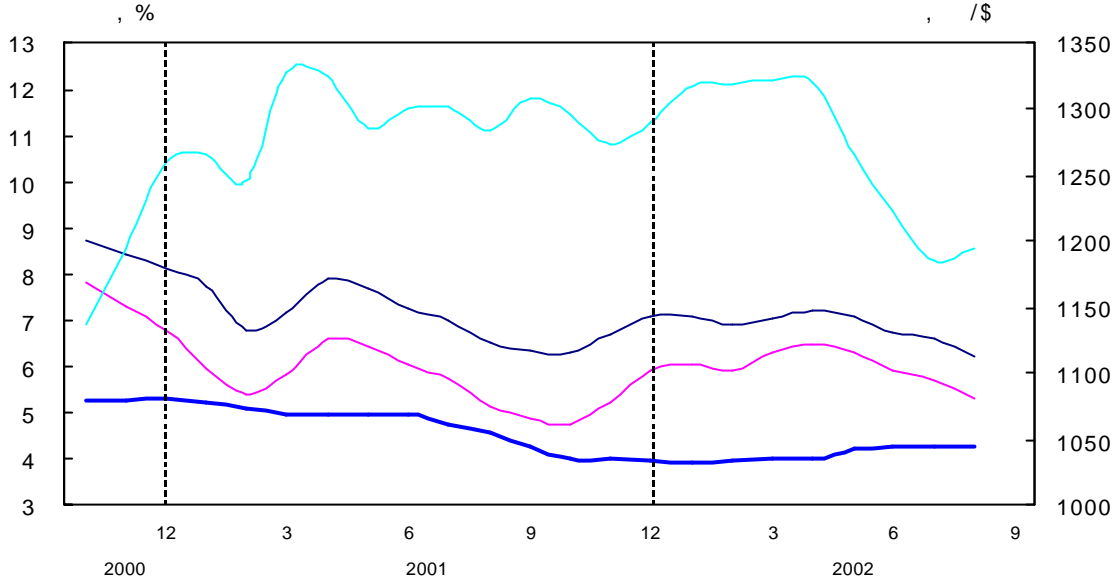
	200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물가	105.5	106.1	106.7	107.1	107.0	106.7	107.4
전년동월대비(%)	2.6	2.3	2.5	3.0	2.6	2.1	2.4
농축수산물	113.6	112.0	112.8	114.2	112.6	110.1	115.2
전년동월대비(%)	11.2	5.8	5.4	9.2	6.1	2.0	3.2

자료: 통계청

-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세로 반전)** 농축수산물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공업제품, 집세, 개인서비스 부문도 상승하여 전월대비 0.7% 상승한 107.4 기록.
-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 농축산물 가격은 호우와 수해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전월대비 4.6% 상승한 115.2를 기록.

8. 금리 및 환율

<월평균 금리>



<월평균 금리 및 환율 변동>

단위: %, 원/\$

	200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¹⁾
콜금리	3.95	3.97	3.99	3.99	4.21	4.28	4.26	4.27
국고채 ²⁾	6.08	5.92	6.30	6.48	6.30	5.93	5.70	5.34
회사채 ²⁾	7.07	6.89	7.05	7.21	7.07	6.76	6.59	6.20
환 율	1317.6	1318.7	1322.5	1320.0	1266.1	1223.5	1185.1	1195.2

1) 3년물 기준, 회사채는 AA-기준, 2) 8월 26일까지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 (콜금리는 안정, 장기 금리는 하향세 지속) 5월 콜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콜금리는 소폭 상승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는 4월 중순이후 하향 기조를 유지.
- (달러화 가치 하락 주춤) 원/달러 환율은 7월 말부터 외국인 주식 매도와 엔화 강세 속도 완화 등으로 반등해 1,200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

9. 주요 선진국 경제

□ 미국

<미국 경제의 주요 지표>

	200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실질 GDP ¹⁾	-	-	1.4	-	-	2.1	-
산업생산 ²⁾	137.6	138.1	138.6	138.8	139.5	140.4	140.7
경기선행지수	111.8	111.9	121.9	111.6	112.3	112.1	111.7
수출 ³⁾	777.0	774.8	784.2	800.5	806.8	820.2	-
수입 ⁴⁾	1,072.1	1,103.7	1,108.9	1,161.9	1,185.3	1,191.8	-
무역수지 ⁵⁾	△295.1	△328.9	△324.7	△361.4	△378.5	△371.6	-
소비자 기대지수 ⁶⁾	91.3	87.2	92.7	89.1	92.7	87.9	81.0
실업률(%) ⁷⁾	5.6	5.5	5.7	6.0	5.8	5.9	5.9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1992=100, 3) 상품과 서비스, 계절조정(억달러)

4) 1966,1=100, 5)계절조정치

자료: The Conference Board, BEA, BLS

- **(산업생산은 증가 추세 지속, 소비자 기대지수는 큰 폭의 하락 지속)**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 시장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무역수지는 5월 379억 달러 적자를 기점으로 6월 적자폭 증가세 주춤. 그러나 소비자 기대지수는 회계부정 사건으로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
- **(2002년 2/4분기 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2.1% 상승)** 6월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1% 상승하여 올해 경제성장의 긍정적 요인.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4분기 5% 성장에서 2/4분기 1.1% 성장에 그쳐 경기회복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공존.

□ 일본

- **(실물경제 회복 조짐)** 실물부문 경제 지표들의 회복 조짐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IMF에 의한 성장률 상향 조정이 이루어짐. 그러나 소비지출의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엔고와 미국시장의 침체 확대 우려로 수출 주도 경제회복의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일본의 주요 경기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2001		2002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GDP 성장률 ¹⁾		△2.4			△1.6			
산업생산 ²⁾	90.4	91.1	91.0	92.1	92.8	93.0	96.8	96.6
수출 ³⁾	△9.6	△15.7	△2.9	△4.3	△2.9	1.3	8.7	6.8
실업률	5.4	5.5	5.3	5.3	5.2	5.2	5.4	5.4

1) 전년동기대비, 실질, 2) 광공업 산업생산(1995=100), 3) 엔화표시 증감률
 자료: 일본 내각부, 총무성 통계국

□ 유로(Euro)지역

<유로지역의 주요 경기지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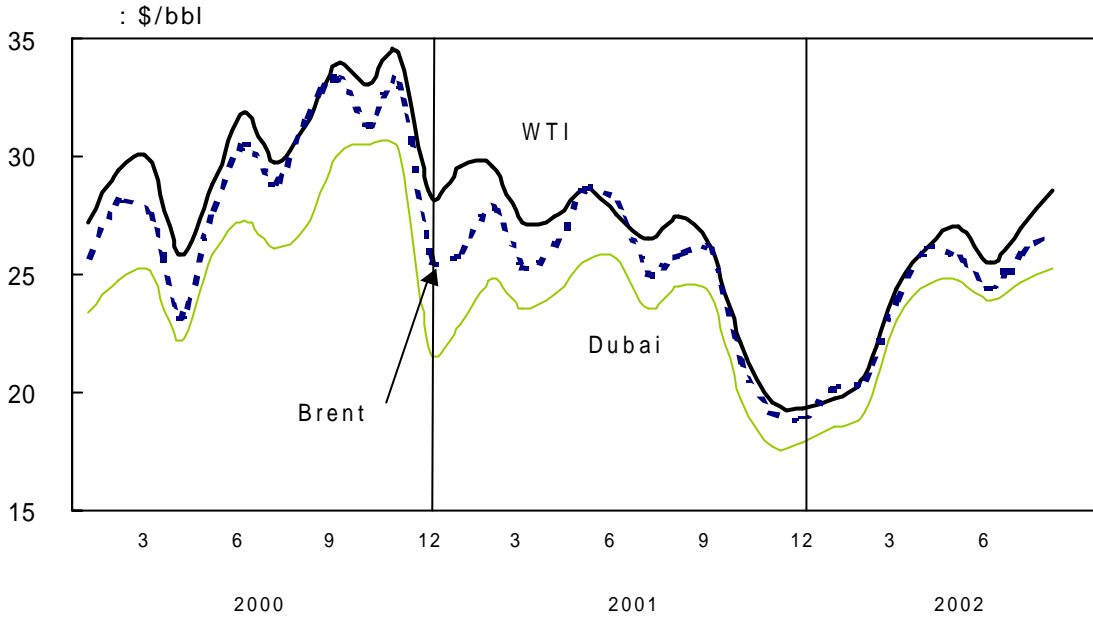
		2001	2002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유로지역	GDP 성장률 ¹⁾	0.4	-	-	0.3	-	-	-
	산업생산 ²⁾	114.3	111.8	116.1	123.8	118.0	117.4	121.7
	실업률 ³⁾	8.1	8.2	8.2	8.2	8.3	8.3	8.4
독일	산업생산	111.5	107.9	110.5	123.4	115.3	111.7	119.3
	실업률	8.0	8.1	8.0	8.0	8.0	8.2	8.3
프랑스	산업생산	119.0	116.8	117.6	122.3	118.7	117.6	122.1
	실업률	8.9	8.9	8.9	9.0	9.0	9.1	9.2

1) 전년동분기대비 성장률, 2) 근무일 조정치, 3) 계절조정치
 자료: EUROSTAT

-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위축) 금년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유로 지역 경제는 주식시장의 침체, 고용 사정의 악화 지속 등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소 위축됨.
- (6월 유로지역 산업생산 부진 지속) 4월 이후 악화되었던 산업생산이 6월에도 부진 지속.

10. 국제유가

<국제유가 변동>



<최근 3개월 국제유가>

단위: \$/bbl, %

	2002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¹⁾
WTI	20.69 (△30.1)	24.40 (△10.3)	26.22 (△4.3)	27.03 (△5.6)	25.49 (△7.5)	26.95 (1.9)	28.60 (4.3)
Brent	20.55 (△26.1)	23.96 (△5.4)	26.13 (△0.5)	25.66 (△10.3)	24.43 (△12.6)	25.86 (3.1)	26.68 (3.3)
Dubai	19.10 (△23.1)	23.01 (△2.0)	24.57 (1.4)	24.74 (△3.4)	23.95 (△6.8)	24.66 (4.9)	25.28 (3.1)

1) 8월 26일까지 평균,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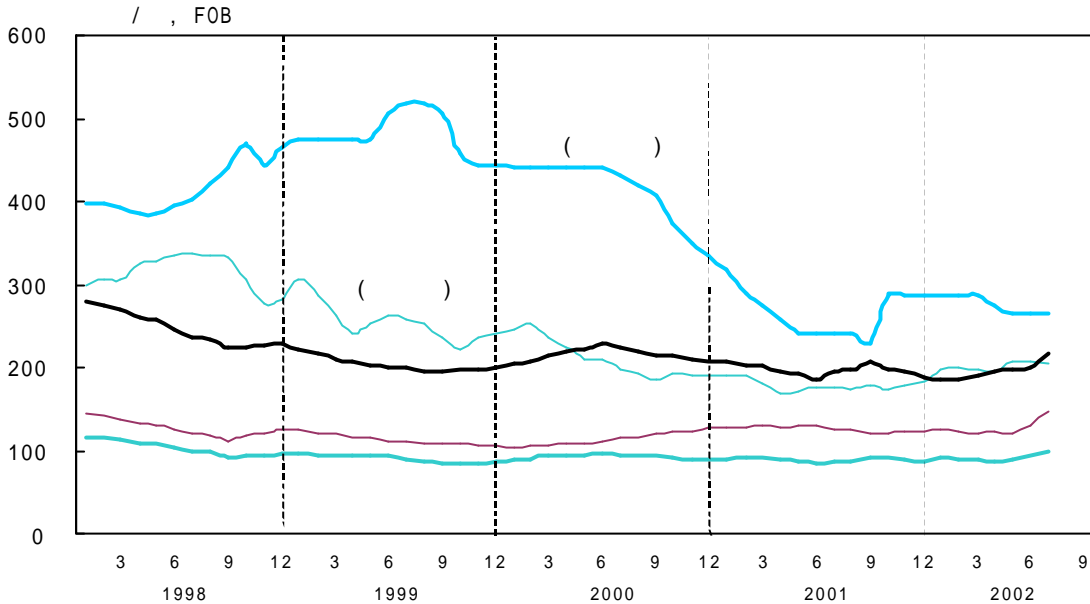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유가 7월 이후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는 7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8월 중순이후에는 10일 만에 10% 이상의 가격 상승.
- **(유가 상승요인)** 미국의 이라크 공격 압박, 8월중 발표된 미국내 원유재고 감소 발표, 미국경제 회복으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 기대감, OPEC 회원국 증산 불가 움직임.

Ⅱ. 농업 · 농촌경제

1. 국제곡물가격

<국제곡물가격>



<국제곡물가격>

단위: \$/톤

	2000	2001				2002		
		연간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쌀(중립종)	413.6	267.1	243.0	243.0	243.0	265.0	265.0	265.0
쌀(장립종)	211.0	178.8	172.0	177.0	177.0	207.0	208.0	205.0
콩	211.8	195.8	192.3	186.3	195.2	197.0	200.0	218.0
옥수수	88.5	89.6	88.0	85.1	87.7	90.3	94.1	98.7
밀	114.1	126.8	130.6	130.6	127.7	121.5	132.0	1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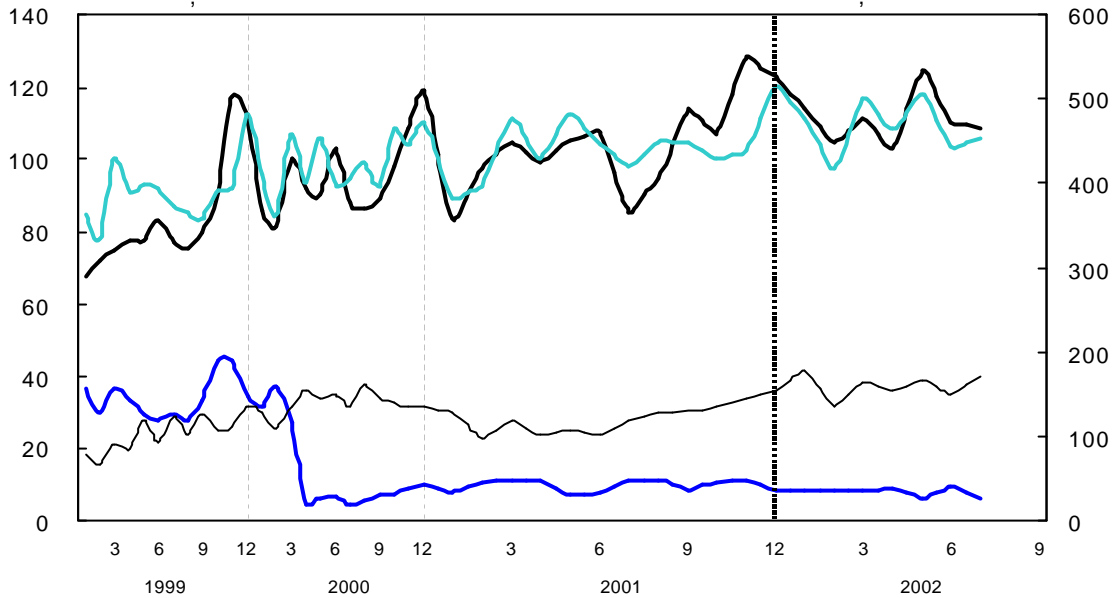
주1) 중립종 쌀은 U.S. Medium California (정곡) 1등급, 장립종 쌀은 태국산 100% Grade B(정곡), 소맥은 U.S. Gulf No.1 HRW, 옥수수는 U.S. Gulf No.2, Yellow, f.o.b, 대두는 U.S. c.i.f Rotterdam 가격임.

자료: USDA, ERS, Rice Outlook, August,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 (7월 중 · 장립종쌀 국제가격은 전월과 유사) 7월 장립종쌀 국제가격은 인도산과의 가격경쟁으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15.8% 상승. 중립종쌀은 전월과 유사하나 전년동기대비로는 9.1% 상승.
- (기타곡물의 국제가격은 상승세 지속) 7월 콩과 밀의 국제가격은 미국 주산지의 이상 고온건조 현상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상승세가 크게 확대. 옥수수 가격도 이상기온의 여파로 완만한 상승세 유지. 전년동기대비 국제가격은 밀 16.9%, 옥수수 12.5%, 콩 11.7% 상승.

2. 농축산물 수출입

<농축산물 수출입>



<농축산물 수출입>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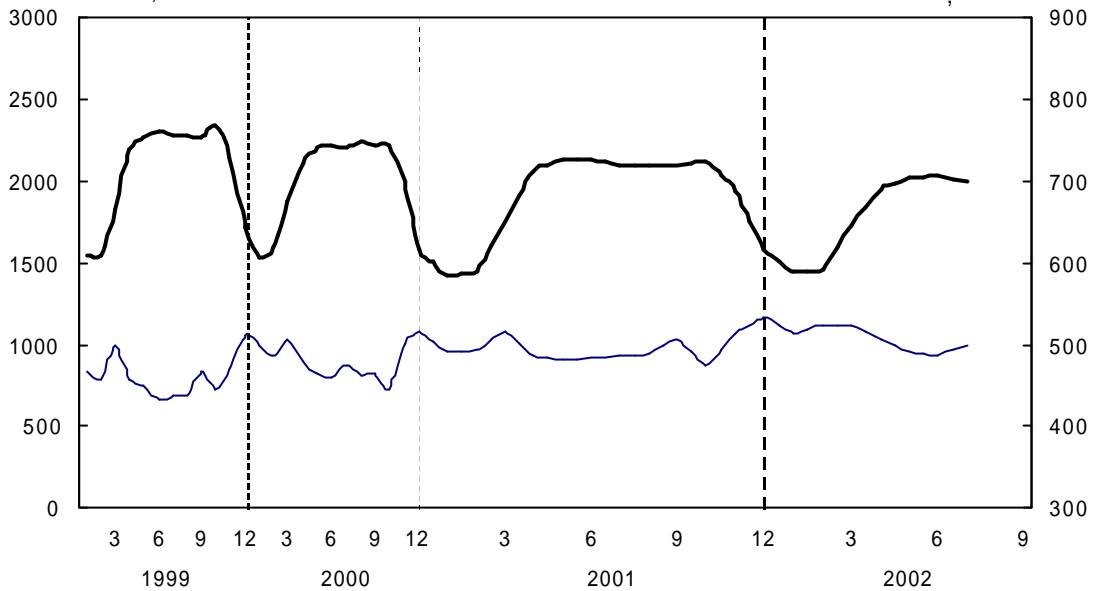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2001년		2002년	
				7월	1~7월	7월	1~7월
수출	농산물	1,142.5	1,251.9	85.6	684.4	108.5	767.2
	축산물	156.8	117.9	11.5	67.3	6.1	56.3
	소계(A)	1,299.3	1,369.8	97.1	751.7	114.6	823.5
수입	농산물	5,100.3	5,325.3	420.2	3,041.7	455.0	3,267.4
	축산물	1,679.4	1,466.5	117.8	772.9	173.0	1,125.3
	소계(B)	6,779.6	6,791.8	538.0	3,814.6	628.0	4,392.7
순수입	B-A	5,480.3	5,422.0	440.9	3,062.9	513.4	3,569.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1~7월 농축산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6% 증가) 1~7월 농산물 수출은 과실류와 화훼류, 김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했으나, 축산물 수출은 돼지고기 수출의 부진 등으로 16.3% 감소.
- (1~7월 농축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 1~7월 농축산물 수입은 과실류, 육류 등의 수입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 순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35억 6,920만달러를 기록함.

3. 농림업취업자와 농외취업자

<농림업 취업자수>



<농가의 취업자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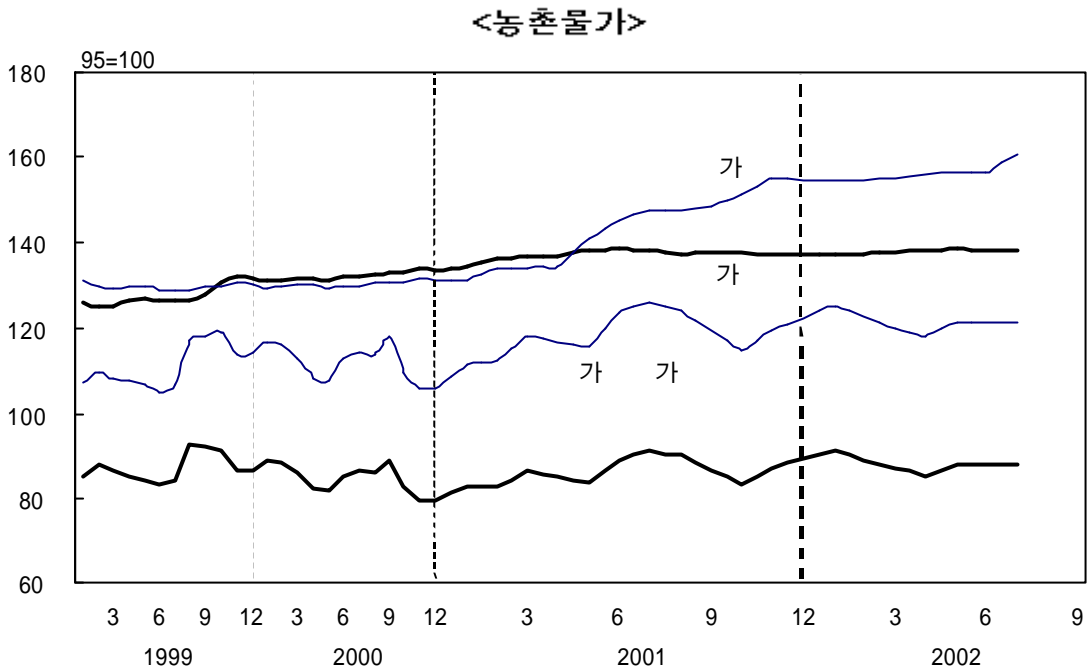
단위: 천명, %

	2001				2002				
	4월	5월	6월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농림업취업자	2,061	2,130	2,130	2,100	1,729	1,949	2,021	2,025	2,001
전년동월대비	△2.4	△3.4	△3.7	△4.7	△1.1	△5.4	△5.1	△4.9	△4.7
농외취업자	486	481	483	486	524	507	490	487	500
전년동월대비	1.5	3.7	5.0	2.3	1.6	4.3	1.9	0.8	2.9

자료: 통계청

- **(농가농림업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7월 농가의 농림업 취업자수는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대비 1.2% 감소한 200만 1천명을 기록. 전년동월대비로는 4월 이후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5%대의 감소율이 견지되고 있음.
- **(농가농외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7월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로 6월에 비해 2.1%p 증가한 50만명을 기록하여 증가세를 유지.

4. 농촌물가



주: 투입재가격은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가격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치임.

<농촌물가지수 변화>

	1999	2000	2001년	2002년			
				4월	5월	6월	7월
농가판매가격지수	108.5	109.6	118.7	118.3 (1.4)	121.4 (4.8)	121.5 (Δ 1.7)	121.4 (Δ 3.6)
투입재가격지수	127.6	132.2	137.2	138.5 (1.2)	138.6 (0.2)	138.3 (Δ 0.2)	138.2 (Δ 0.1)
판매가격/투입재	87.0	84.6	86.5	85.4 (0.1)	87.6 (4.6)	87.8 (Δ 1.5)	87.8 (Δ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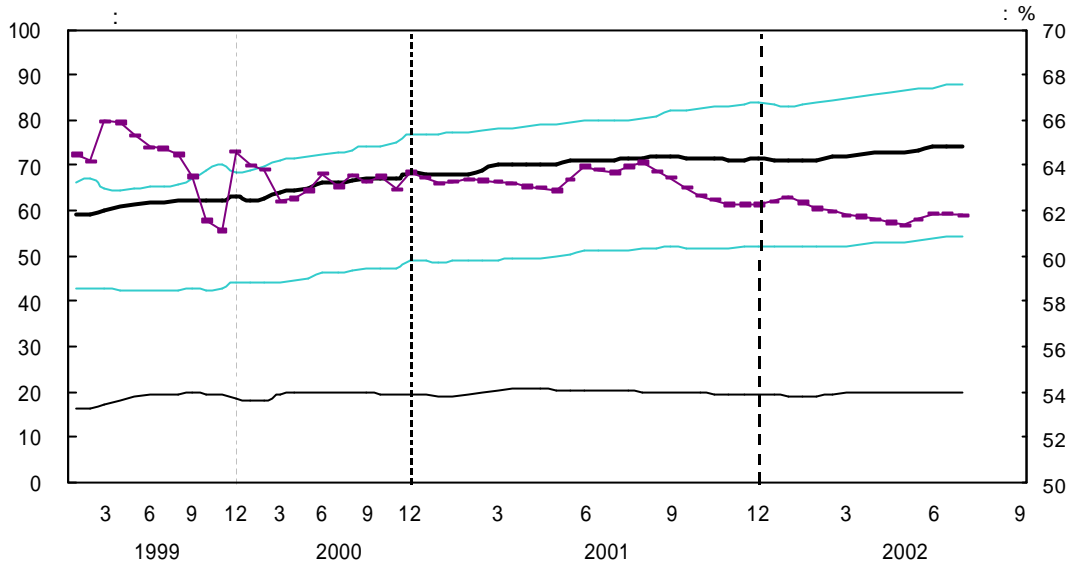
주: ()안 숫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농협

- **(농가판매가격 7월 들어 약보합세)** 7월 들어 영농광열비의 하락(Δ 4.6%)으로 농업투입재 가격의 완만한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7월 농가판매가격은 축산물 가격하락(Δ 0.9%)으로 전월대비 0.1p 하락한 121.4를 기록.
- **(7월 농업경영조건 전월과 유사)** 7월 들어 판매가격/투입재 비율은 전월과 유사하나, 전년동기대비 3.5% 감소로 감소세가 다소 확대됨.

5. 농업금융

<농업금융 잔고>



<농업금융 잔고>

단위: 조원

		2001년 7월		2002년 7월		전년동월 대비(%)
		잔 고	전월차	잔 고	전월차	
대 출	상호금융	51.0	0.1	54.5	0.5	6.7
	정책자금	20.2	0.0	19.8	△0.1	△2.1
	계	71.3	0.1	74.3	0.4	4.2
예 금	상호금융	80.1	0.4	88.1	0.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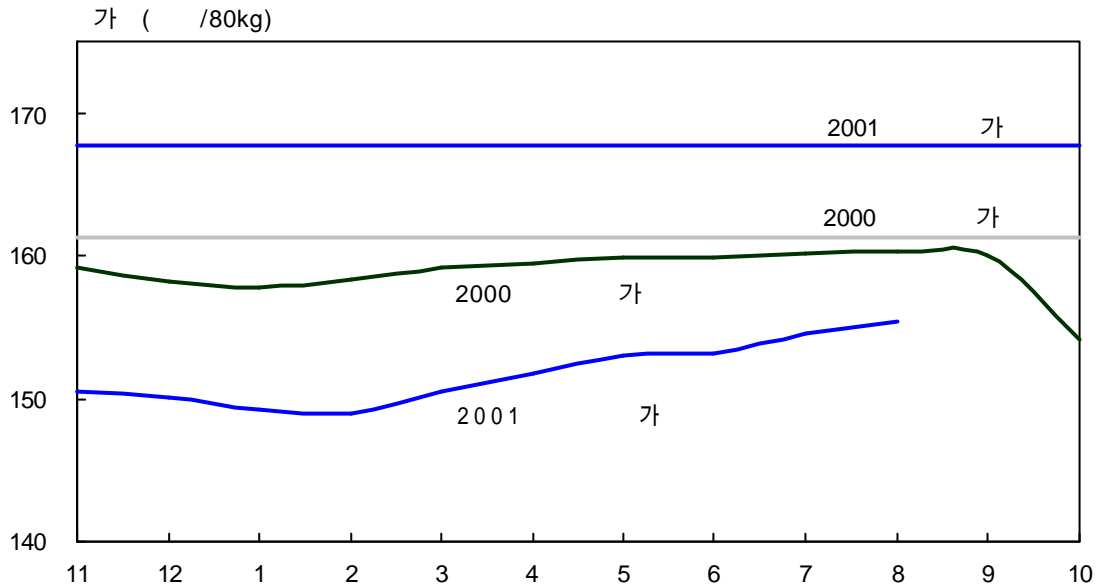
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업금융 총 대출액 전년동기대비 4.2% 증가)** 7월 농업금융 대출액은 상호금융이 전년동월대비 6.7% 증가했으나, 정책자금은 전월에 비해 2.1% 감소. 총 대출액은 전월보다 4.2% 증가한 74조 3천억원.
- **(상호금융 예대비율 전년동기대비 3.0% 하락)** 7월 상호금융 예금 잔고는 전월보다 9천억원 증가한 88조 1천억원, 대출은 전월대비 4천억원이 증가해 7월 예대비율은 전월과 유사. 전년동기대비 예대비율 3.0% 하락.

6. 쌀 수급동향과 전망

□ 쌀 가격동향

<쌀 가격>



<쌀 가격 변동>

단위: 원/80kg, %

	2001년				2002년			
	5월	6월	7월	8월	5월	6월	7월	8월 ¹⁾
산지쌀가격	159,781	159,891	160,156	160,236	152,979	153,244	154,484	155,379
전월대비	0.2	0.1	0.2	0.0	0.8	0.2	0.8	0.6
전년대비	2.0	1.4	0.7	0.3	△4.3	△4.2	△3.5	△3.0
산지조곡가격	56,483	56,509	56,421	56,105	53,441	53,755	53,840	53,840
전월대비	0.0	0.0	△0.2	△0.6	0.4	0.6	0.2	0.3
전년대비	△0.8	△2.0	△3.4	△4.3	△5.4	△4.9	△4.6	△3.8
산지/조곡 ²⁾	2.83	2.83	2.84	2.86	2.86	2.85	2.87	2.88

주 1) 8월 26일 가격, 2) 산지조곡가격(40kg) 대비 산지쌀가격(80kg)

자료: 농림부 식량정책과

- **(쌀 산지가격 상승세 유지)** 8월 산지 쌀 가격은 80kg당 15만 5,379원으로 전월대비 0.6% 상승함으로써 완만한 상승세 유지. 전년동기대비로는 3.0% 하락함으로써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됨.
 - 8월 쌀 산지가격은 전년 수확기대비 3.5% 상승에 그쳐, 금년산 벼 매 취요인은 여전히 저조.

Ⅲ. 품목별 수급 동향

1. 채소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8월 채소류 가격은 상순이후 지속된 집중호우와 저온현상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지난 달보다 크게 상승하였음.
- 전반적인 출하량이 적을 것으로 보여 채소류 가격은 9월에도 강세가 지속될 전망.
- 금년 가을 및 겨울 작물의 재배의향 면적은 작년보다 감소.

<채소 도매가격 등락률 (상품 기준)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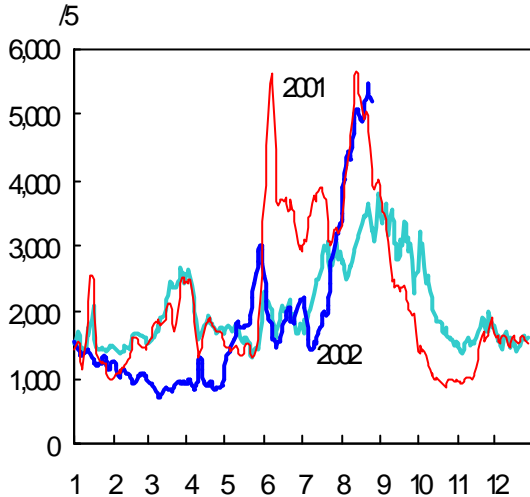
	1~7월 가격		8월 가격			9월 전망	
	작년 동기	평년 ²⁾ 동기	전월	작년 동기	평년 ²⁾ 동기	전월	작년 동기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배추	$\Delta 36$	$\Delta 25$	136	0	46	보합	+
무	$\Delta 10$	11	23	$\Delta 27$	26	+	+
고추	$\Delta 23$	$\Delta 3$	$\Delta 12$	$\Delta 41$	$\Delta 27$	+	-
마늘	47	7	3	3	$\Delta 5$	보합	보합
양파	$\Delta 27$	$\Delta 35$	20	19	12	+	+
대파	$\Delta 6$	$\Delta 9$	76	$\Delta 13$	$\Delta 3$	-	-
쪽파	12	0	29	2	17	-	+
양배추	$\Delta 18$	$\Delta 42$	23	$\Delta 57$	$\Delta 40$	보합	-
당근	$\Delta 13$	$\Delta 6$	$\Delta 2$	$\Delta 46$	$\Delta 9$	+	-
감자(수미)	$\Delta 15$	$\Delta 12$	11	$\Delta 14$	$\Delta 8$	+	보합

1) 가락동시장 도매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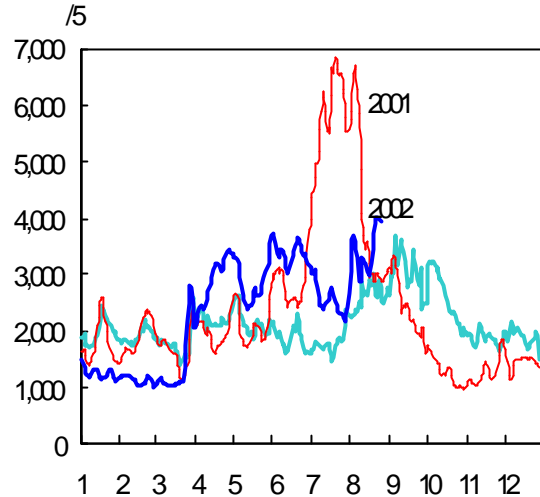
2) 1997~2001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나. 배추·무

<배추 도매가격 (상품)>



<무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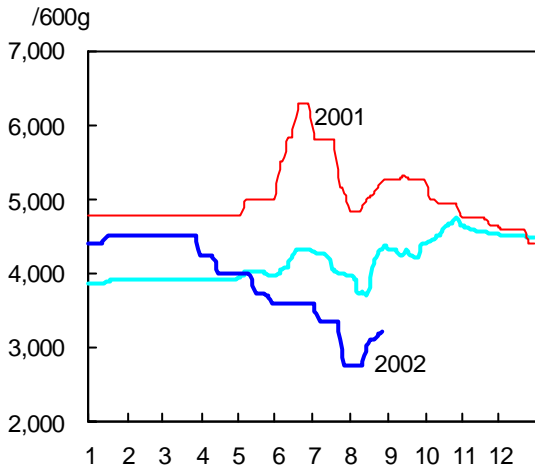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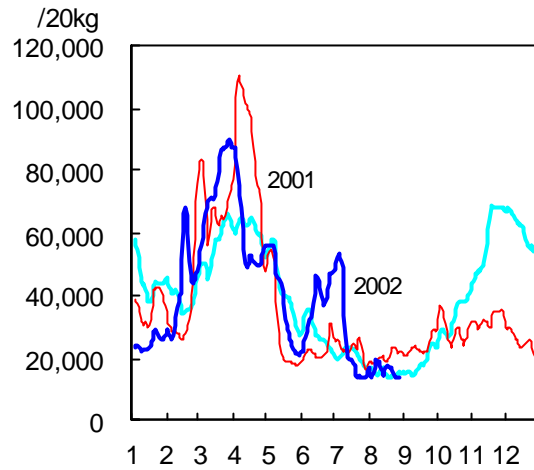
- 8월 배추·무 가격은 평년에 비해 크게 높았음. 이는 8월 상순 이후 계속된 집중 호우와 저온으로 고랭지배추·무의 작황이 크게 나빠져 출하량이 적었고, 열같이 배추, 열무 등도 출하량이 감소하여 수요가 배추·무로 집중되었기 때문임.
- 9월 출하예상면적이 작년보다 적고 작황도 나빠, 9월에 출하될 고랭지배추·무 출하량은 작년보다 25%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9월 고랭지배추·무 도매가격은 작년이나 평년보다 크게 높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김장배추·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5~8% 적고, 평년 재배면적보다 5% 이상 적은 것으로 조사됨.
- 월동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재배면적이 많았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됨. 이는 호남 지역에서 마늘·양파를 대체할 만한 동계작물이 없어 배추로 작목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임.

다. 고추

<건고추 도매가격 (화건, 상품)>



<홍고추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건고추는 1997년 8월~2002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이고, 홍고추는 1997년~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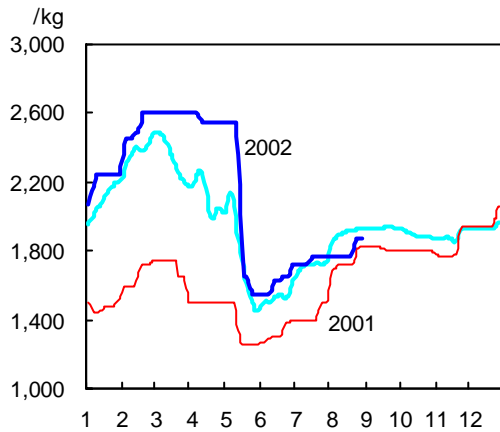
- 금년산 고추 생산량은 18만 6천톤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보다 3% 많으나, 평년보다는 3% 적은 수준임. 2002년산 고추의 연평균가격은 화건 상품 600g당 4,000원, 수확기인 8~10월 가격은 3,500원 내외가 될 전망.
- 2001년산 건고추 수급기간인 작년 8월~금년 7월까지 고추의 총수입량은 41,498톤으로 작년 동기(29,809톤)보다 39% 많은 수준임. 그러나 2002년산 건고추 수급기간이 시작되는 8월의 고추 수입량은 245톤으로 작년 동기(3,092톤)보다 약 12배 적은 수준으로, 이는 금년산 고추의 생산량과 재고량이 많아 국내 고추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임.
- 중국의 금년산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산동성은 작년과 비슷하나 내몽고, 신강등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현재 작황은 작년보다 좋으며 특히 냉동홍고추를 수출하기 위해 가공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02년산 고추의 예상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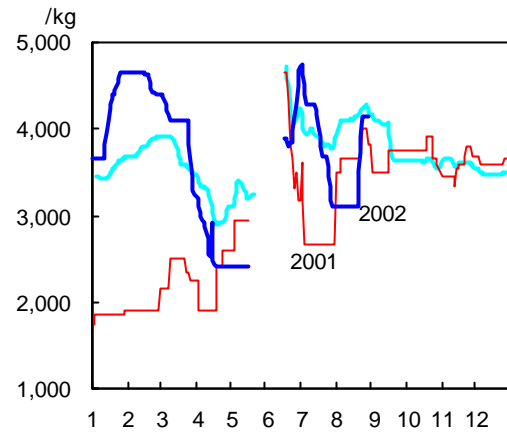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톤)	생산량 증감률(%)	
			작년 대비	평년 대비
72,104	255~260	184~187	21~41	-40~-21

라. 마늘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상품)>



<한지형 마늘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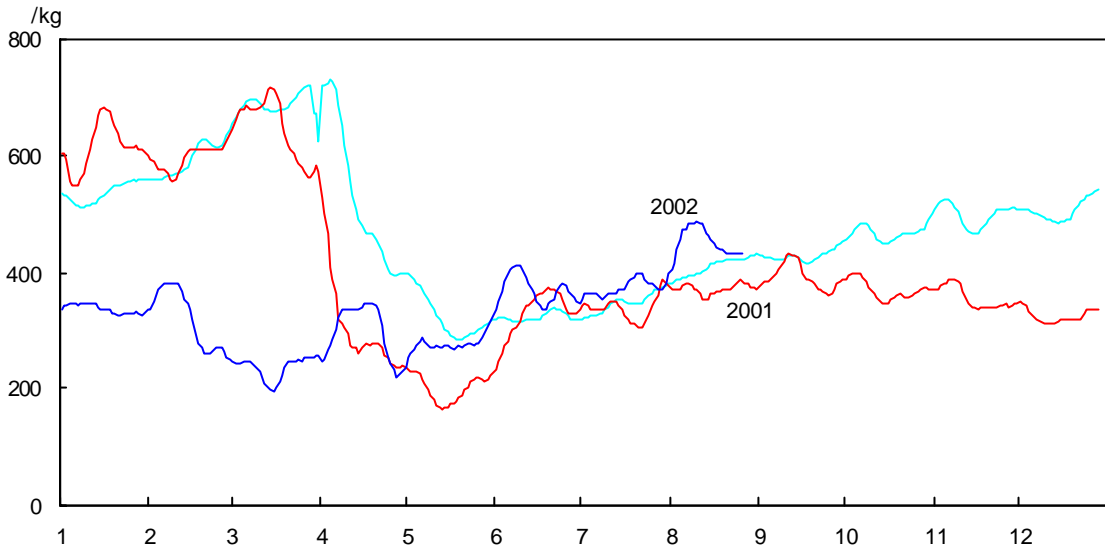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저온창고 입고물량은 작년 동기보다 2% 많은 9만 5천~9만 6천톤임. 8월 15일 현재 농가 판매량은 작년보다 4% 적은 30만 3천톤이며, 농가 보유량은 작년과 비슷한 9만 2천톤 내외로 조사됨.
- 내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7% 감소한 3만 800ha 내외로 조사되었으며, 한지형이 9%, 난지형이 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평년 단수를 적용한 내년산 마늘 생산량은 금년보다 11% 감소한 35만톤 내외로 추정됨.
- 재배의향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마늘긴급수입제한 조치의 해제에 따른 마늘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와 노동력 부족으로 조사됨.
- 금년 1~8월의 국산 깎마늘 하품가격이 평년보다 16%, 작년보다 46% 높아 냉동·초산조제마늘의 수입량은 작년보다 37% 많은 9,079톤이었음.
- 9월 이후의 냉동·초산조제마늘의 수입량은 국산 깎마늘 가격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 작년 동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마. 양파

<양파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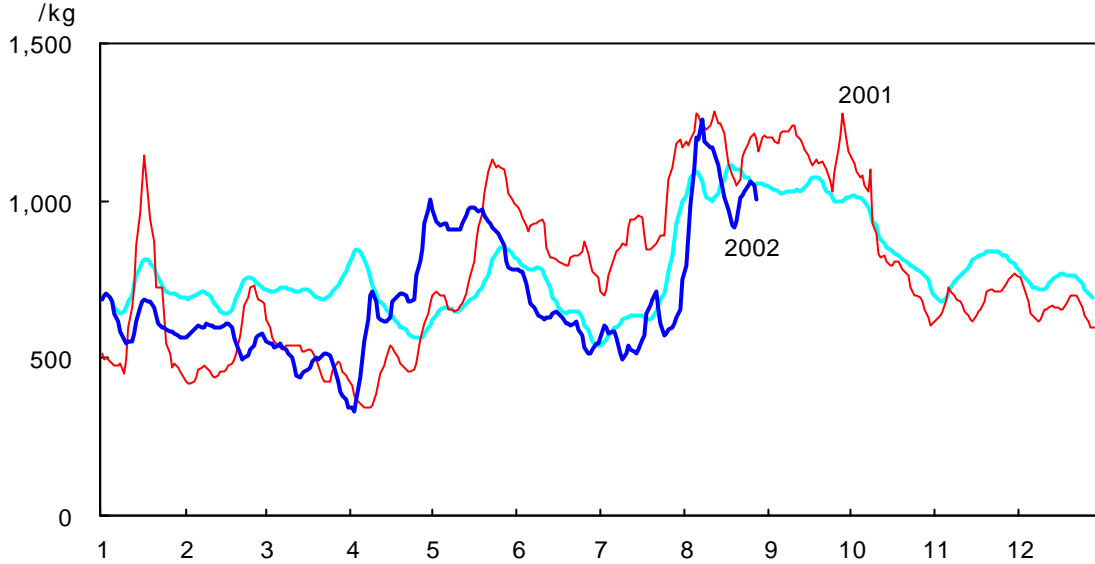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저온저장물량은 작년보다 약 3% 적은 43만 7천톤으로 추정됨. 저온저장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의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높겠지만 평년 동기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중만생종 양파의 농가 판매량은 작년 동기보다 16% 적은 66만 4천톤, 농가 보유량은 작년 동기와 비슷한 11만 7천톤으로 조사됨.
- 농가 보유량의 상품성이 낮고 上品 비중도 작년보다 적어 9월의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조금 높겠지만 중하품과의 가격차는 클 것으로 예상됨.
- 금년산 고령지양파 생산량은 작년보다 33% 감소한 1만여톤으로 추정됨.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이 작년보다 14% 적고 품질이 좋은 저온저장물량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지양파의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금년과 비슷한 1만 5,300ha 내외로 추정되며, 중만생종은 3% 증가하나 조생종은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바. 대파

<대파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출하지인 경기·강원의 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 8월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평년 동기보다 3%, 작년 동기보다 13% 낮은 1,030원(중품 750원)이었음.
- 9~10월의 가을대파 출하량이 작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낮은 상품 kg당 800원 내외로 약보합세 전망.
- 김장대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보다 3% 증가한 반면, 겨울대파는 3% 감소. 내년 3월 이후에 출하될 중부지방 월동대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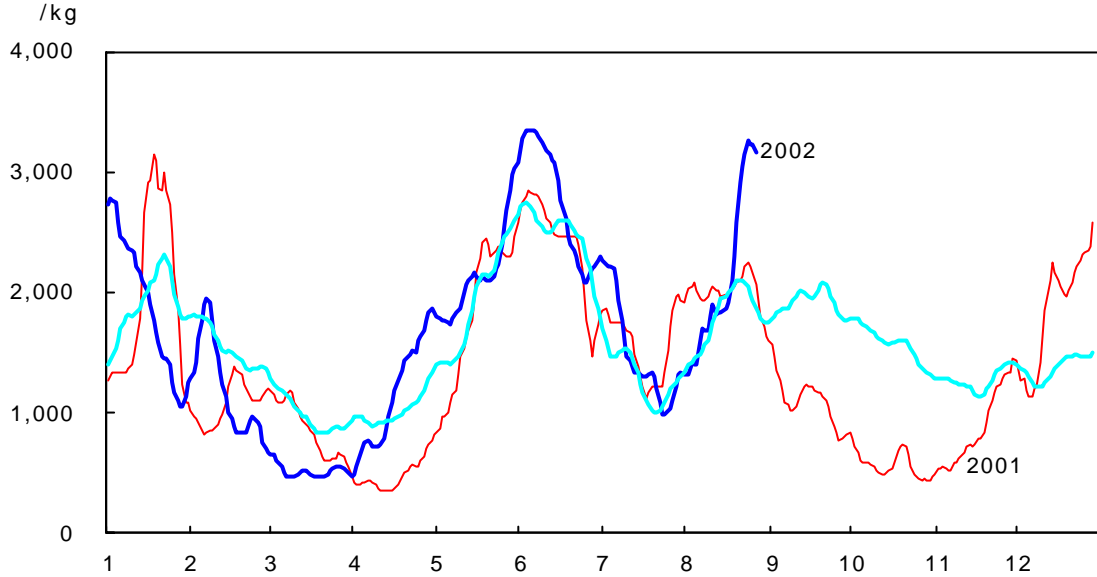
<대파 출하예상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출하시기	경기·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부산·경남	전체
가을	6.8	-0.6	2.1	7.6	0.0	-1.9	4.2
김장	7.0	3.4	0.0	6.4	3.7	1.4	3.4
겨울	-	-	-	-3.1	-	-0.7	-2.7
월동	4.3	-3.8	-1.3	-	3.2	-	1.3

사. 쪽파

<쪽파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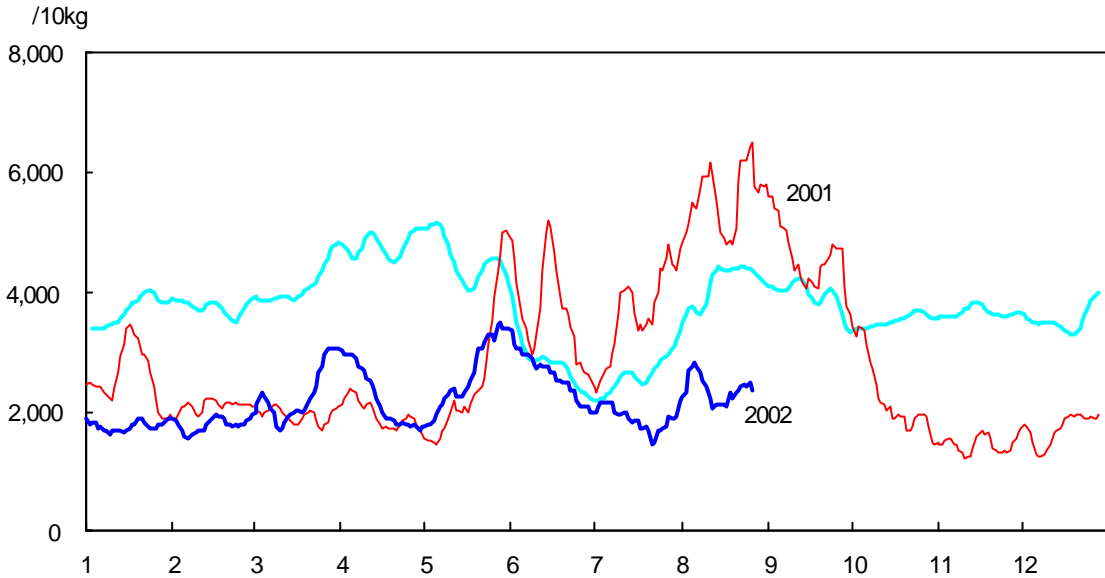
-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집중호우로 인해 상품성이 높은 쪽파의 출하량이 적어 8월 하순에 가격이 급등함. 따라서 8월의上品 kg당 도매가격은 2,05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17%, 작년 동기보다 2% 높은 수준.
- 9~10월의 가을쪽파 출하예상면적이 작년보다 7% 적고, 예상단수도 2% 낮아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높으나 8월보다는 낮은 약보합세 전망.
- 김장쪽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보다 2% 적고, 겨울쪽파는 비슷할 전망.

<쪽파 출하예상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출하시기	단위: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가을	-5.2	-4.6	-9.0	-5.6	-4.4	-7.2
김장	1.2	2.1	6.2	-6.0	-2.0	2.4
겨울	0.0	-3.3	-0.4	0.0	3.9	-0.3

아.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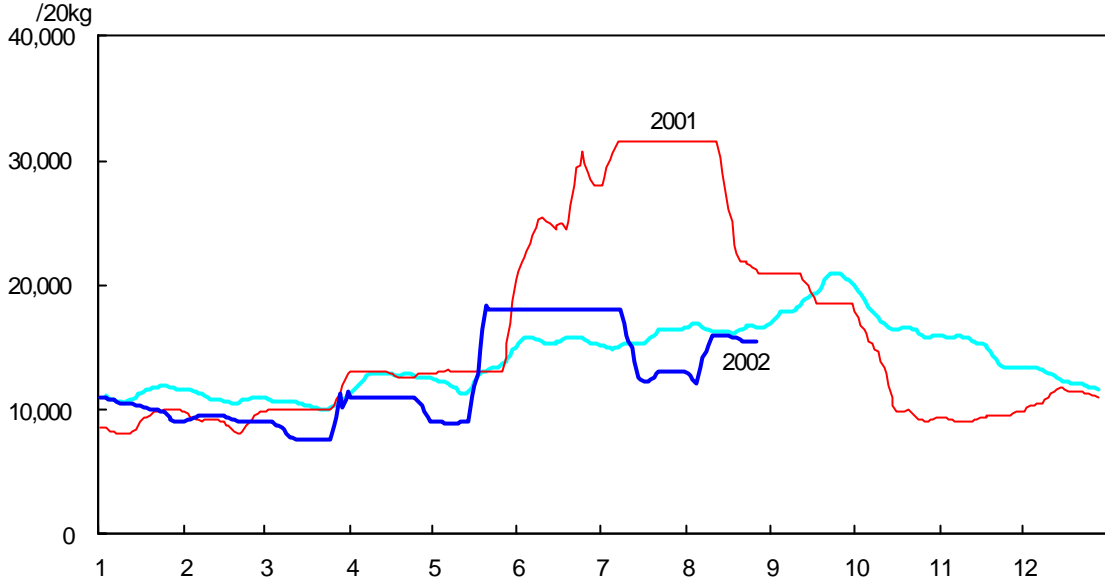
- 8월 평균도매가격은 고령지양배추 출하량이 증가하여 상품 10kg당 2,330원(중품 1,72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40%, 작년 동기보다 57% 낮은 약세를 보임.
- 9월의 고령지양배추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6%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평년 동기보다 낮고, 8월 수준에서 보합세 전망.
-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가을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작년 가격이 낮았기 때문임.
- 호남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겨울양배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최근 2년간 가격이 낮아 월동배추, 양채류 등으로 작목전환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임.

<겨울양배추 정식의향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조사시기	단위: %		
	호남	제주	전체
7. 20	1.1	-9.6	-5.4
8. 20	-4.6	-11.5	-9.7

자. 당근

<당근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8월 상순의 집중호우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으나, 저장량이 많은데다 고랭지당근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8월의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14,610원(중품 10,06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9%, 작년 동기보다 46% 낮은 수준.
- 9월 고랭지당근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보다 3% 적으나, 저장량이 많아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19,846원)보다 낮고, 평년(18,360원)과 비슷할 전망.
- 작년 가을·겨울당근의 가격하락으로 금년 재배면적은 각각 7% 감소.

<가을당근 재배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파종시기	충청	경북	경남	전체
7~8월	-2.5	-8.2	-11.7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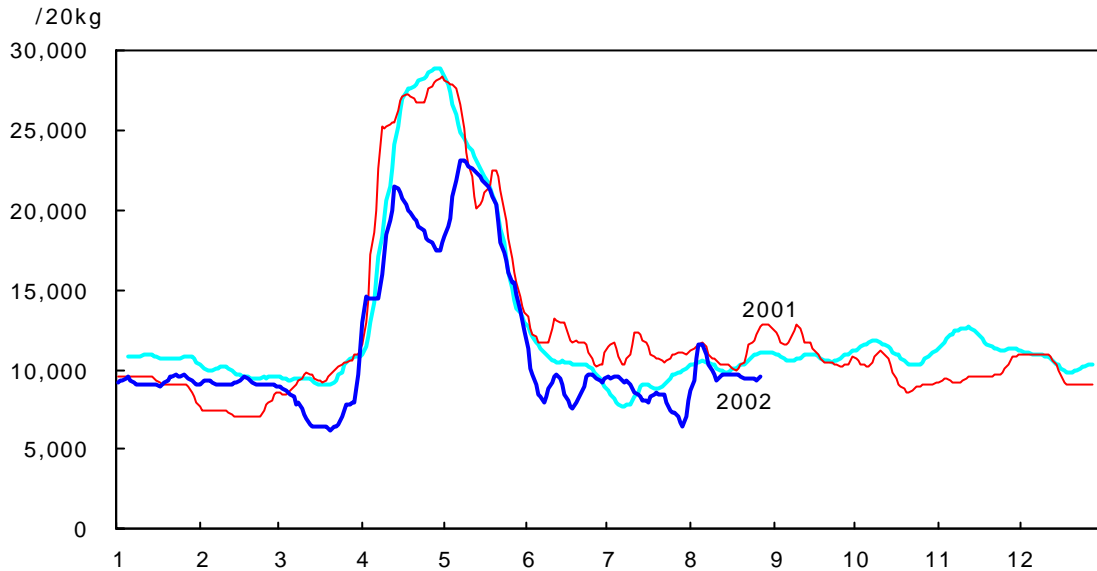
<겨울당근 재배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파종시기	북제주	남제주	전체
7~8월	-7.9	-5.7	-7.2

차. 감자

<감자 도매가격 (수미,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고령지감자(수미) 재배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7% 감소한 4,538ha 내외이고 10a당 수확량은 작년보다 4% 감소한 3,200~3,300kg으로 조사됨. 재배면적에 예상단수를 적용한 생산량은 작년보다 10%, 평년보다 4% 감소한 14만 7,500톤 내외로 추정
- 9월의 고령지감자 출하량은 작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패스트푸드 등 가공용감자 소비가 늘고 가정용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9월 가격은 상품 20kg당 11,000원 내외로 8월보다 높지만 작년 동기와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가을감자(대지)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지난달 조사치(15% 감소)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을감자 재배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주도에서 콩, 당근, 배추 대신 가을감자를 늘리려 하기 때문임.

<가을감자(대지) 재배의향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전체	
3.1	-8.2	-13.9	-10.6	-8.4	

2. 과채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8월 과채류 도매가격은 수박, 토마토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가격이 높았던 이유는 면적이 줄어든 데다가 8월 국지적 집중호우로 유실 및 침수된 면적이 있고, 단수가 낮아 작년보다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 9월에 출하될 오이, 호박, 참외 물량은 태풍(루사)피해로 지난해보다 적어 도매가격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박, 토마토는 태풍피해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가격은 낮을 것으로 전망.
- 작년 10월 이후 가격이 좋아 과채류 9월 정식의향면적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동기대비 과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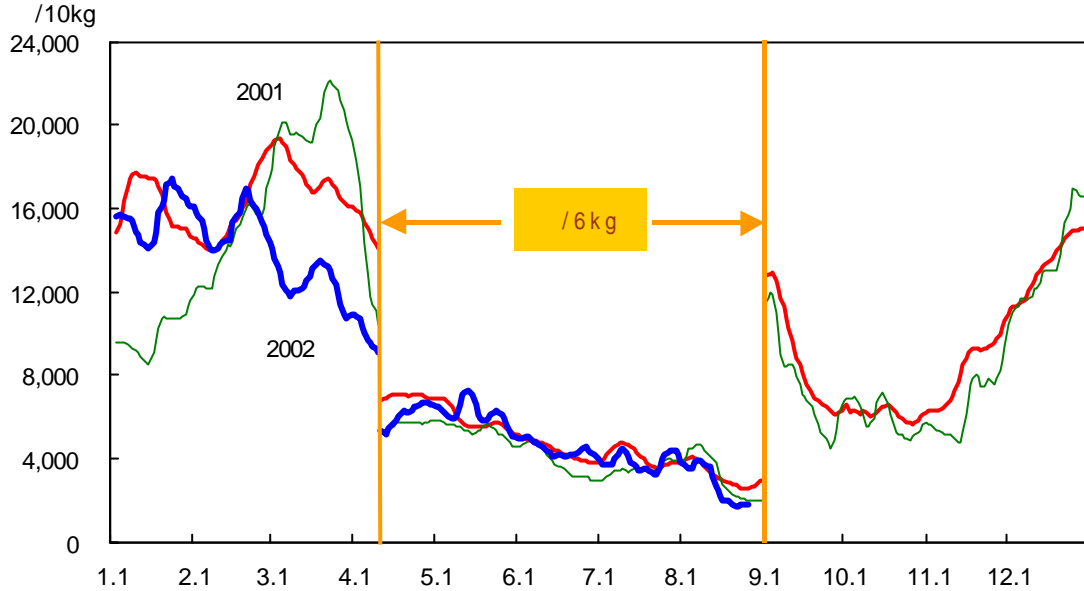
단위: %

	1~7월 가격		8월 가격		9월 전망	
	작년동기 대비	평년동기 대비	작년동기 대비	평년동기 대비	작년동기 대비	평년동기 대비
수박	△12	△50	△14	△11	-	-
참외	8	△21	15	1	+	보합
토마토	15	14	△22	5	-	보합
방울토마토	46	20	△49	△28	-	-
호박(쥬키니)	△20	△1	134	139	+	보합
호박(애호박)	△14	△22	62	66	+	보합
오이(취청)	△6	△2	16	30	+	보합
오이(백다다기)	△17	△27	△5	15	+	+

주: 평년은 1997~2001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이고, 8월가격은 8.1~8.26일까지임.

나. 수박

<수박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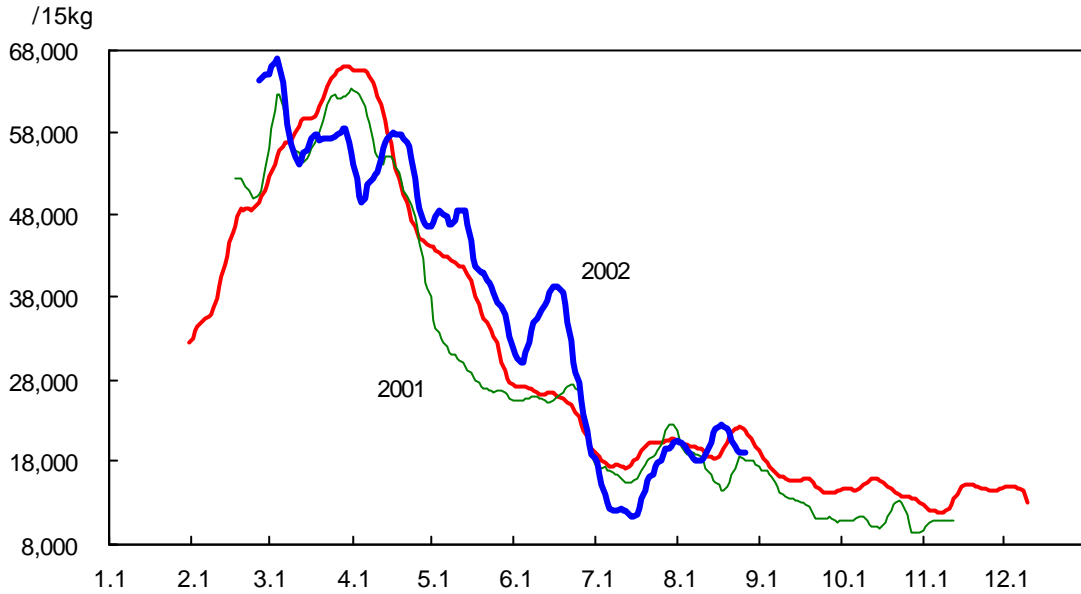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9월~익년 4월 11일~8월 31일까지는 상품 6kg 개당 수치임.

- 8월 수박 출하량은 작년보다 적었으나 계속된 강우와 흐린 날씨로 소비가 감소하여 가격은 작년(상품 3,400원/6kg)보다 14% 낮고, 평년(상품 3,300원/6kg)보다는 11% 낮았음.
- 8월 국지적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출하예정면적은 작년보다 10~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8월 가격에 비해 9월 가격이 높아 작기를 늦추어 출하하려는 작기변화가 있고, 금년 수박가격이 높아 토마토, 딸기 등 후작으로 수박재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임.
- 계속된 강우에 의한 습해와 일조부족으로 9월 수박단수는 작년보다 5~6%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9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4~5%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품질 또한 좋지 않아 상품 10kg상자 당 도매가격은 작년 7,6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8~9월 정식의향면적은 금년 수박가격이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높았고 작년 11월 이후 가격도 재작년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3~6% 늘어날 전망.

다. 참외

<참외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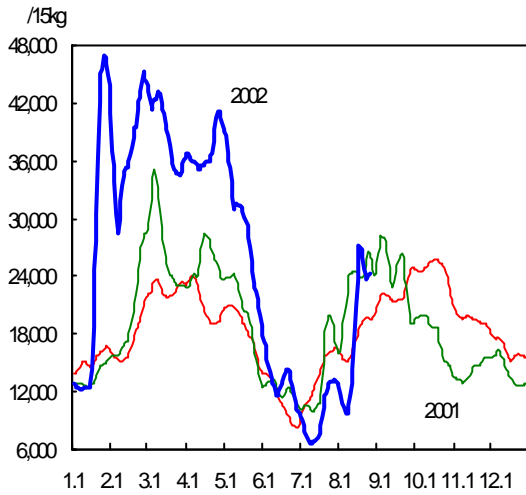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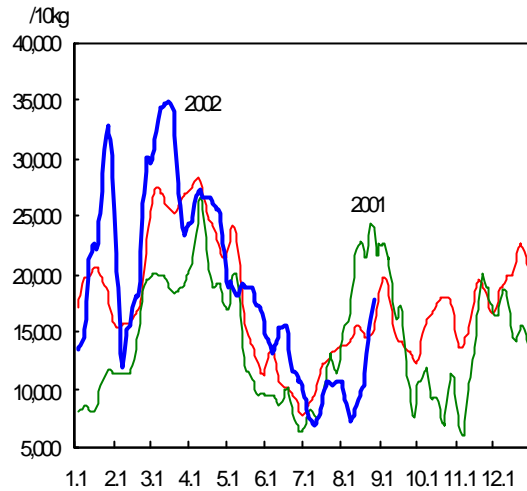
- 8월 참외 출하량은 작년보다 적어 가격은 작년(상품 1만 7,500원/15kg)보다 15% 높고, 평년(상품 1만 9,800원/15kg)보다는 약간 높았음.
- 9월 출하예정면적은 작년보다 12% 줄어들 전망. 이는 작년 도매가격이 좋았으나 주산지인 경북지역이 노동력부족으로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가 많았고, 연작피해로 고사주 발생이 많아 면적이 줄어들었고,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유실 및 침소된 면적이 있었기 때문임.
- 9월에 출하될 참외단수는 성주를 중심으로 대량생산보다는 품질위주의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단수가 낮아졌고, 8월 계속된 강우와 흐린 날씨로 생육이 부진하여 작년보다 8% 낮아질 전망.
- 9월에 출하될 물량은 단수가 낮고 면적도 줄어 작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작년 1만 3,000원보다 높은 평년 1만 5,500원과 비슷할 전망.

라. 토마토

<일반 토마토 도매가격, 원/1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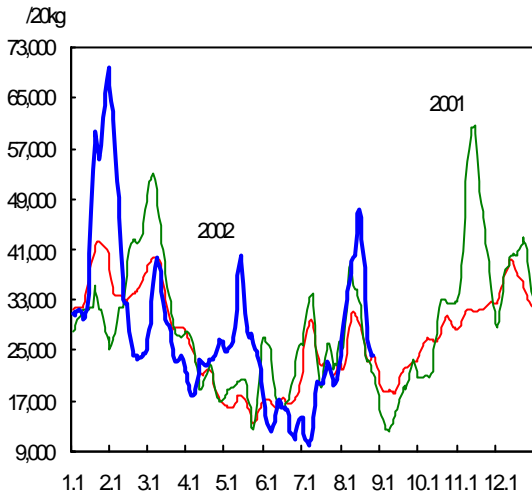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원/1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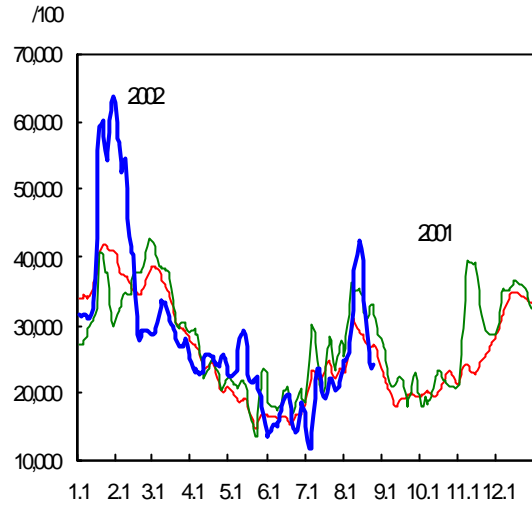
- 8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32% 많아 작년 상품 15kg당 2만 2,980원보다 22% 낮고, 방울토마토는 작년보다 49% 많아 상품 10kg당 2만 320원보다 20% 낮았음.
- 일반토마토와 방울토마토의 9월 출하예정면적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작년 9월 가격이 일반토마토는 전년에 비해 13%, 방울토마토는 14% 높았기 때문임.
- 9월에 출하될 일반토마토는 작년보다 18~22% 많아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작년 2만 4,300원보다 낮고 평년 2만 2,000원과 비슷할 전망. 방울토마토 9월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13~15% 많아 도매가격은 상품 10kg당 작년 1만 5,500원보다 낮을 전망.
- 9월 일반토마토의 정식의향면적은 12월 이후의 가격이 높아 3% 정도 증가할 전망. 방울토마토 정식의향면적은 11~12월 가격이 평년에 비하여 좋지 않지만 1월 이후의 가격이 높아 1~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마. 오이

<취청 도매가격>



<백다다기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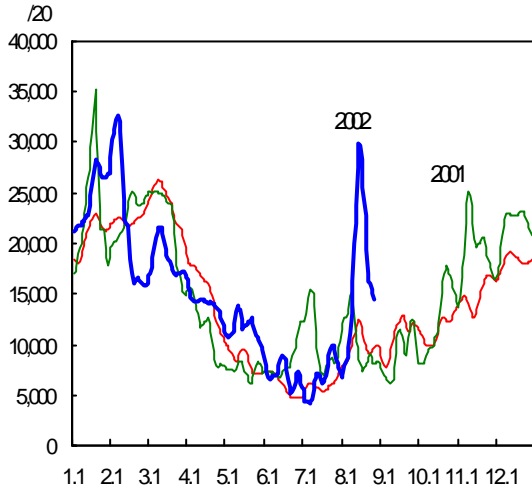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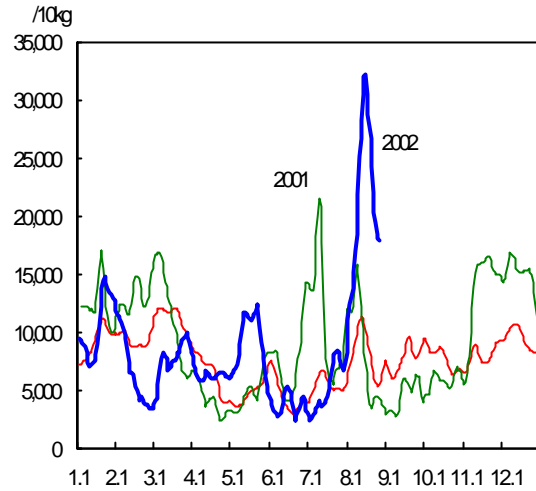
- 8월 취청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많았으나 호우피해로 출하량이 26%나 적어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작년 2만 7,900원보다 16% 높았음. 8월 백다다기 출하물량은 중순까지는 적었으나 이후 많아져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8% 많아 상품 100개당 도매가격은 작년 3만 2,100원보다 5% 낮았음.
- 9월에 출하될 취청 예상면적이 적은데다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면적이 많아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10% 이상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9월 취청 도매가격은 작년 1만 7,200원보다 5%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됨.
- 9월에 출하될 백다다기 예정면적이 작년보다 10% 적은데다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유실면적이 있었고, 단수도 낮아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15% 이상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9월 백다다기 도매가격은 작년 2만 1,700원보다 높은 8%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됨.
- 9월에 정식하는 취청 의향면적은 작년보다 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9월에 정식할 백다다기 의향면적은 작년 10~11월의 가격이 전년보다 높아 작년보다 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바. 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쥬키니 도매가격>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8월의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애호박, 쥬키니 출하량이 급감하여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하순부터는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8월 도매가격은 작년(애호박: 1만 200원/20개, 쥬키니: 8,200원/10kg)보다 62~134% 높은 수준임.
- 9월에 출하될 애호박 예정면적이 작년보다 적은데다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유실면적이 있었고, 단수도 낮아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10% 이상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9월 애호박 상품 20개당 도매가격은 작년 9,000원보다 6%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됨.
- 9월에 출하될 쥬키니 예정면적도 작년보다 적은데다 단수도 낮아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8% 이상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9월 쥬키니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9월에 정식하는 애호박 의향면적은 작년 10~11월의 가격이 전년보다 높아 작년보다 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쥬키니 정식의향면적도 작년보다 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3. 과일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사과·포도 공급량이 적어 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높으며, 배·감귤은 공급량이 많아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음. 복숭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적지만, 잦은 비로 품질이 떨어져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
-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41만톤 전망. 배·단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 내외 많겠으며, 포도·감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10% 적을 전망.
- 추석이 지난해보다 10일 빨라서 사과, 배 등의 추석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10% 내외 적겠음. 그러나 생산량 증가로 추석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많겠음. 특히 추석이후 배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20% 많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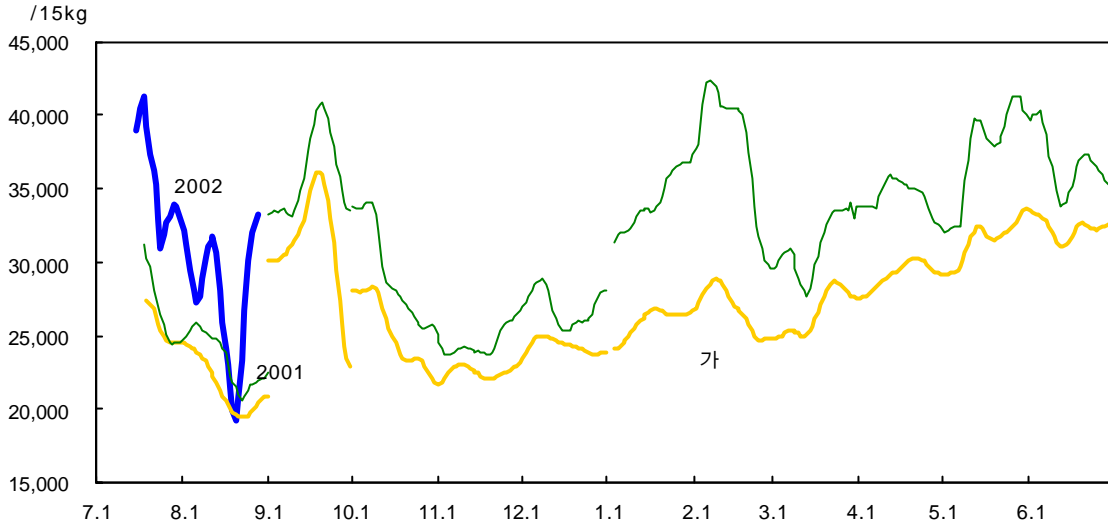
<주요 과일의 7~8월 가격 등락률>

	7월 가격		8월 가격	
	지난해대비	평년대비	지난해대비	평년대비
사과	32	37	17	28
배	△56	△53	△52	△54
포도	△ 5	△ 4	19	13
복숭아	△14	△11	△35	-
감귤	△17	△36	△13	△24
오렌지	△21	△28	△22	△16

주 : 복숭아의 경우 7월은 창방, 8월은 미백 기준임.

나. 사과

<사과 도매 가격>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 이후는 후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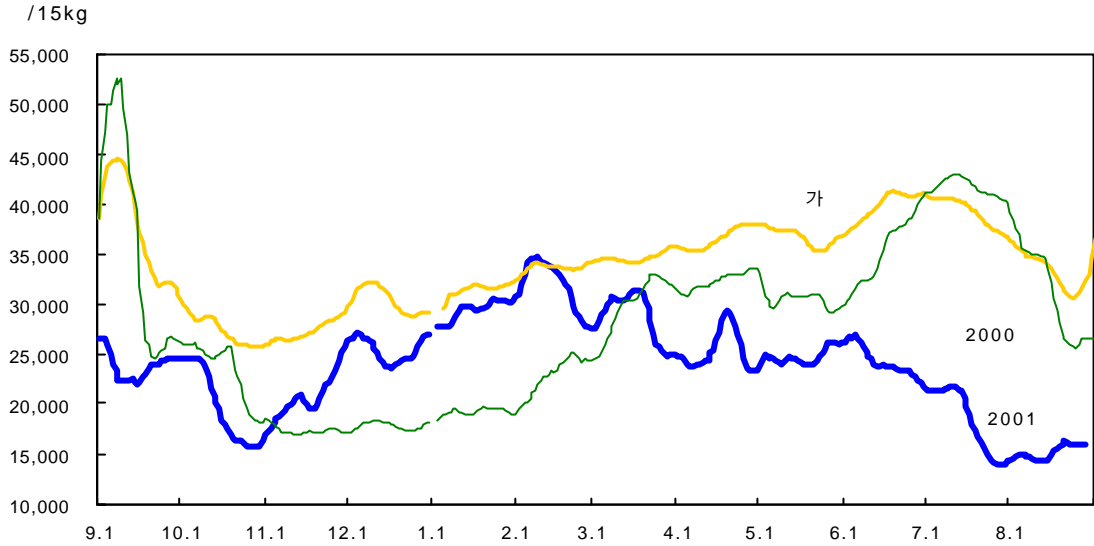
-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쓰가루 가격은 8월 중순에 상품 15kg당 1만 9천원 까지 하락하였으나, 중순 이후 상승함. 8월 가격은 2만 8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20% 높은 수준.
-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3%(630ha) 적지만 단수가 5%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6천톤) 많은 41만톤 전망.
- 추석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적어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이나, 추석 이후 공급량은 8% 많고 배 공급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10월 이후 가격은 지난해(후지 상품 15kg당 3만 1천원)보다 낮을 전망.

<사과 공급 전망>

		생 산 량 (A)	7~9월 공급량(B)	10월 이후 공급량(A-B)
공급량 (천톤)	2001년산	404	129	274
	2002년산	410	113	296
2002/2001 증감률(%)		1.5	-12.4	8.0

다. 배

<배 도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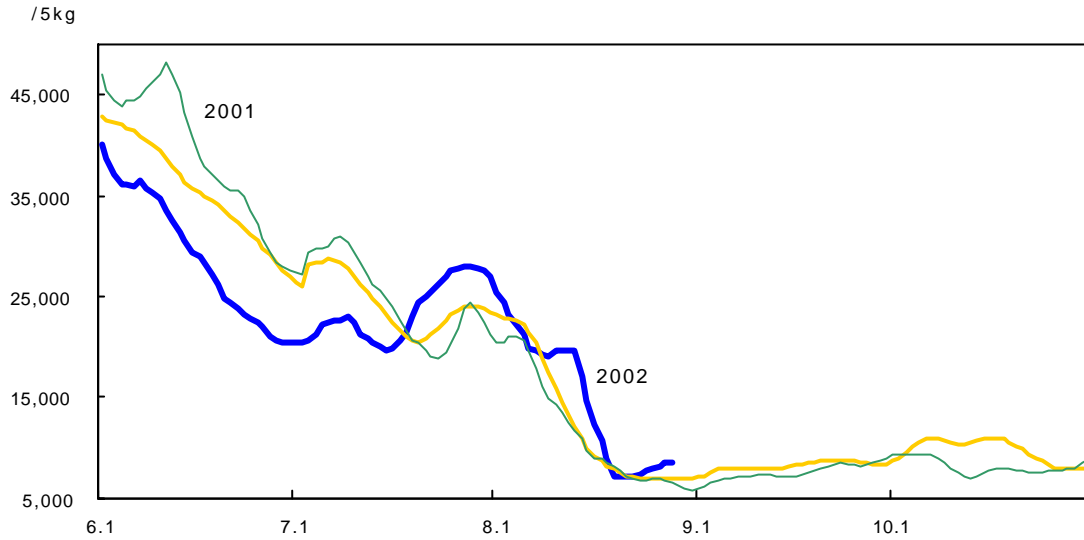
- 8월 신고 가격은 지난해보다 50% 낮은 상품 15kg당 1만 5천원 수준에서 보합세이며 저장량은 거의 소진.
- 성목면적은 16%(2,330ha) 늘어난 1만 7,110ha이며 단수는 4%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1%(5만톤) 많은 46만톤 전망.
- 추석이 지난해보다 10일 빨라서 신고의 추석 명절 출하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9월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9% 적겠으며 10월 이후는 20% 많은 35만톤 수준이 될 전망.

<배 공급 전망>

		생 산 량 (A)	9월 공급량 (B)	10월 이후 공급량(A-B)
공급량 (천톤)	2001년산	417	125	292
	2002년산	463	114	350
2002/2001 증감률(%)		11.1	-9.3	19.8

라. 포도

<포도 도매 가격>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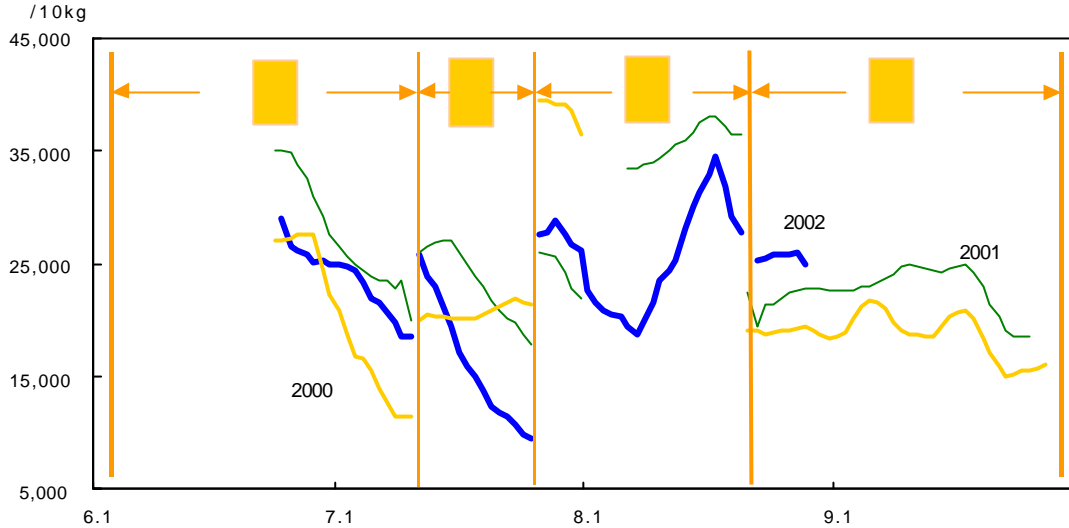
- 화진현상과 집중강우로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8월 포도가격은 지난해보다 20% 높음.
- 노지포도의 작황 및 품질은 화진(꽃떨이)현상과 8월 강우로 지난해보다 좋지 않음.
-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2% 감소하고 단수도 지난해보다 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노지포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4만톤) 적은 39만톤으로 전망됨.

<노지포도 생산 전망>

	성목면적(ha)	성목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01년	21,092	2,056	430
2002년	20,650	1,900	390
2002/2001 증감률(%)	-2.1	-7.5	-9.5

마. 복숭아

<복숭아 도매 가격>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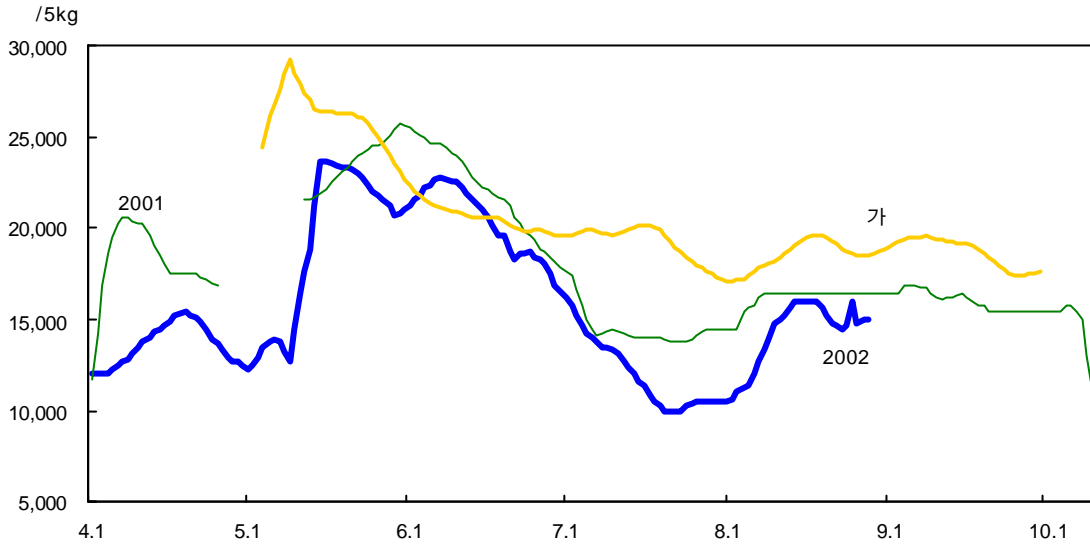
- 계속된 비로 당도가 떨어져 8월 복숭아 가격은 지난해보다 35% 낮았음. 그러나 비가 그치면서 하순부터는 지난해보다 15% 높은 수준 유지.
- 8월 집중호우에 의한 낙과로 중생종 복숭아의 단수는 지난해보다 2% 이상 적었던 것으로 추정. 만생종은 집중호우의 영향은 적게 받았으며, 단수는 지난해보다 4% 많을 전망.
-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10%(820ha) 늘어나고 단수는 지난해와 비슷하여,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1%(2만톤) 많은 19만톤 전망. 9월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14% 늘어날 전망.

<복숭아 생산 전망>

	성목면적(ha)	성목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01년	8,062	2,063	166
2002년	8,880	2,087	185
2002/2001 증감률	10.1	1.1	11.4

바. 감귤

<감귤 도매 가격>



주: 월동재배 및 하우스감귤 5kg을 15kg으로 환산한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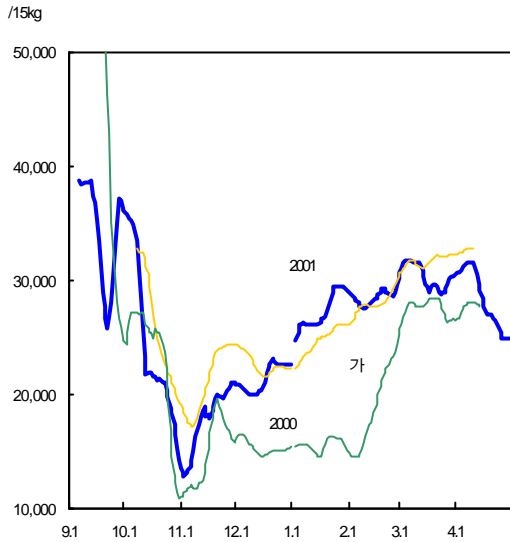
- 8월 하우스몬주 가격은 5kg당 1만 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5% 낮는데 이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30% 내외 많기 때문임.
- 노지감귤의 10a당 열매수는 지난해보다 35% 적지만, 같은 해결이해인 재작년보다는 11% 많음. 이는 6~7월 제주지역의 최저기온이 낮아 생리낙과가 적었기 때문.
- 노지감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 적고, 재작년보다는 12% 많은 59만톤 수준 전망.

<노지감귤의 생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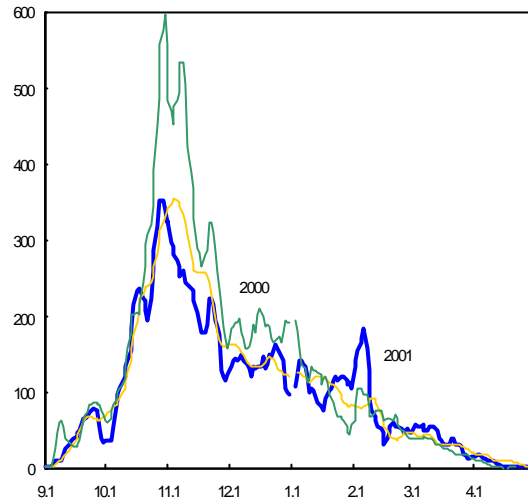
생산량(천톤)			증감률(%)	
2002년	2001년	2000년	작년	재작년
587	608	525	-3.4	11.8

사. 단감

<단감 도매 가격>



<단감 가락시장 반입량>



-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2% 감소하고 단수는 지난해보다 7% 증가하여 단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1만톤)증가한 21만톤으로 전망됨.
- 추석이 지난해보다 10일 빠르며, 수정불량으로 서촌조생의 숙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석전 단감공급량은 지난해보다 적을 전망.
- 조생종 단감의 품질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좋지 않을 전망.

<단감 공급 전망>

		생 산 량 (A)	9월 공급량(B)	10월 이후 공급량(A-B)
공급량 (천톤)	2001년산	198	11	186
	2002년산	208	12	196
2002/2001 증감률(%)		5.5	5.7	5.5

4. 축산

가. 개황

- 7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4만두로 전월대비 12%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여, 8월 한우수소(500kg) 산지가격은 383만원까지 상승함. 9~11월에도 한육우 도축물량이 작년 동기간에 비해 20% 정도 감소할 전망이므로 한우수소 산지가격은 평균 390~430만원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 낙농가의 사육의향이 높아 8월 초임만삭우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9% 상승하였음.
- 8월 성돈 산지가격은 이동제한지역의 해제, 대일수출 기대로 입식된 돼지 출하, 수입물량 증가 등 공급물량 증가와 수출금지로 인한 비선호부위 재고 누적 등으로 전년동월보다 14.3% 하락하였음. 9월 산지가격도 출하두수 증가로 전년동월(17만 1천원)보다 하락한 16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8월(1~28일) 계란가격은 공급물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전년동기보다 13.8% 하락한 717원임. 9월 가격도 공급물량 증가로 전년동기(973원)보다 하락한 750~850원이 될 전망이다.
- 8월 육계 산지가격(1~28일)은 공급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1,458원)보다 43.0% 하락한 kg당 827원임. 9월 산지가격도 전년동기(1,144원)보다 하락한 800~900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및 평년 동기 대비 가격의 등락률>

단위: %

	1~7월 가격		8월 가격 ¹⁾	
	지난해동기대비	평년 ²⁾ 동기대비	지난해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한우(큰수소)	30.6	50.9	14.9	48.3
한우(수송아지)	36.0	103.9	23.5	103.3
초임만삭우	14.2	30.6	1.9	17.6
돼지	10.7	5.7	△14.3	△12.8
육계	△8.3	0.8	△43.0	△38.8
계란	△9.7	△1.6	△13.8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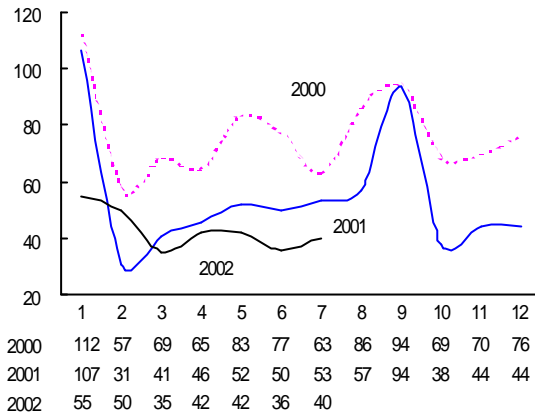
주 : 1. 평년은 1997~2001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2. 1~2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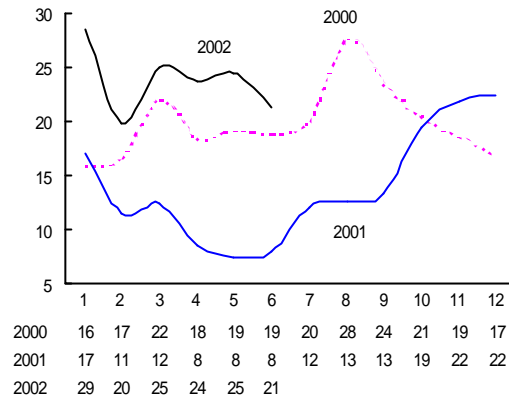
나. 한육우

<한육우 월별 도축현황>



자료: 농림부.

<쇠고기 수입(검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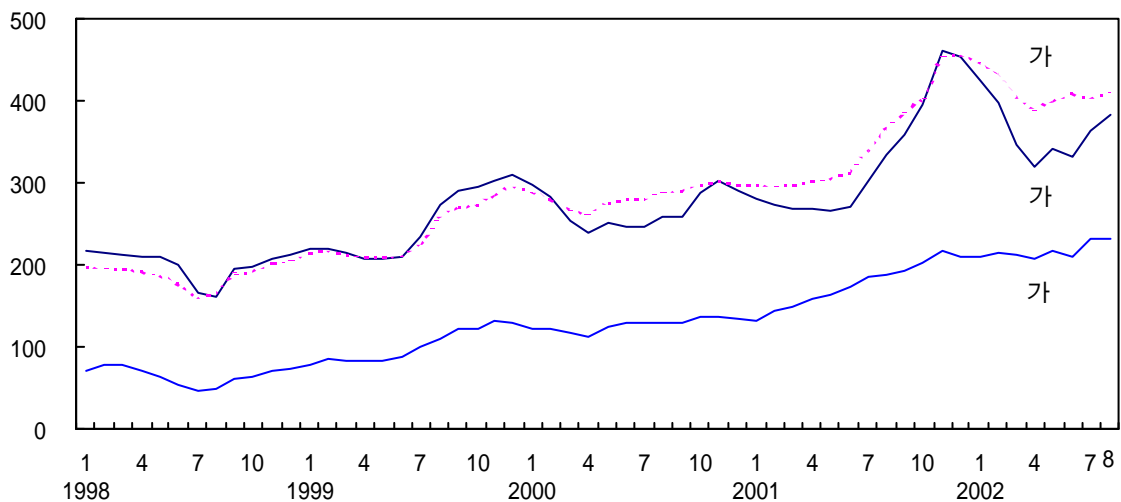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7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4만두로 전월에 비해 12% 증가,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25% 감소하였고, 6월 쇠고기 수입은 2만1천톤으로 전월에 비해 13% 감소하였음.

○ 7월 한육우 도축두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25% 감소하여 한우수소(500kg) 산지가격은 7월 평균 360만원대까지 상승하였고, 8월(1~28일 평균)에는 383만원까지 상승함. 9~11월에도 한육우 도축물량이 작년 동기간에 비해 20% 정도 감소할 전망이어서 한우수소 산지가격은 평균 390~430만원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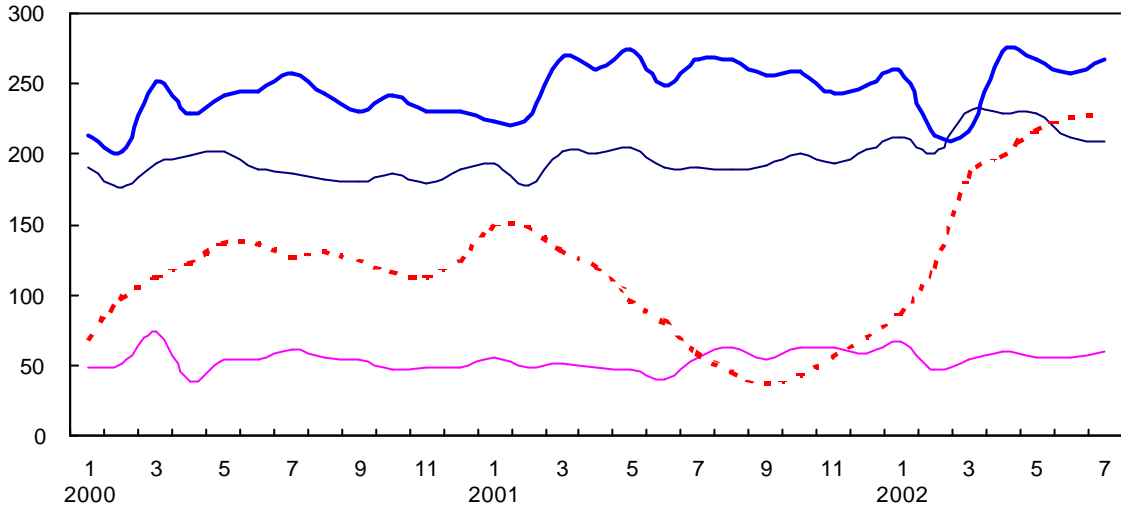
<한우 산지가격>



자료: 농협중앙회.

다. 젓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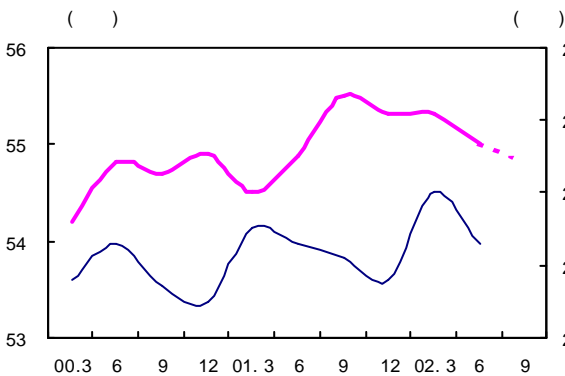
<원유 수급>



자료: 낙농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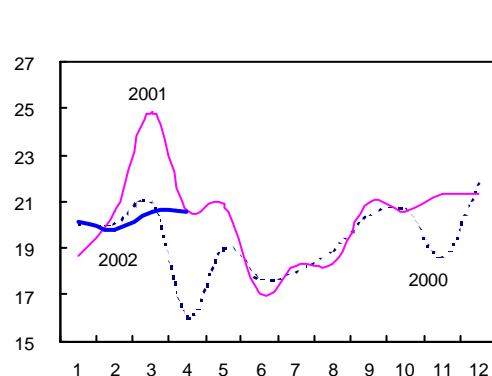
- 7월 원유생산량은 착유우 도태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9% 증가하였음. 그러나 원유소비량은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하여 7월 원유재고량은 전년동월보다 크게 증가한 22만 8천톤임(낙농진흥회). 원유 재고량이 크게 감소할 요인이 없어 원유수급불균형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9월 젓소 사육두수는 4월 22일~6월 22일 실시한 착유우 도태정책으로 2세이상 암소두수가 감소하여 전년 동기보다 1.3%(5천두) 감소한 54만 3천두로 전망됨.

<젓소 사육두수>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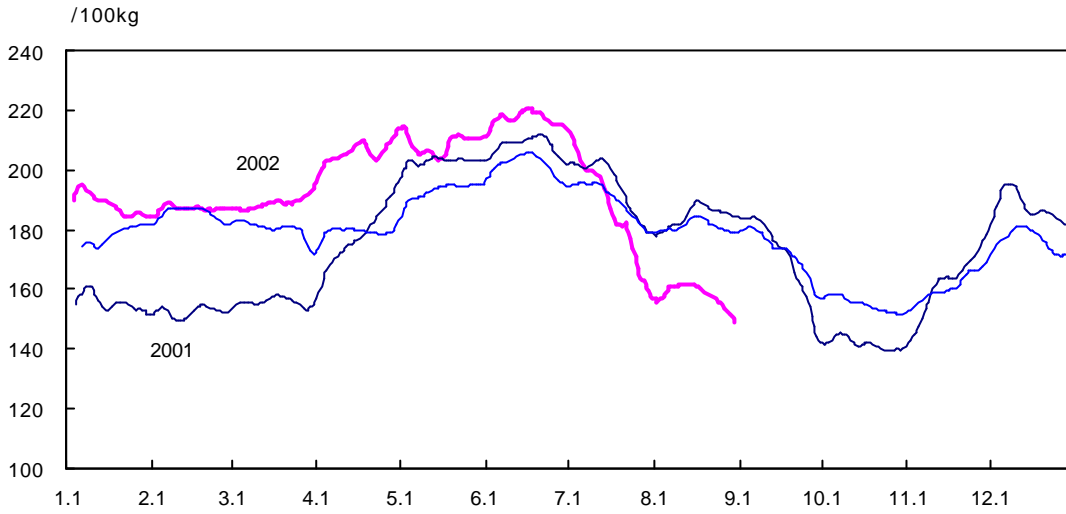
<월별 인공수정실적>



자료: 농림부.

라.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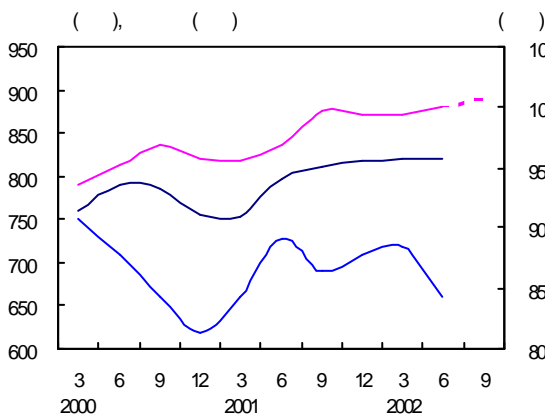
<성돈 산지가격>



주: 5일이동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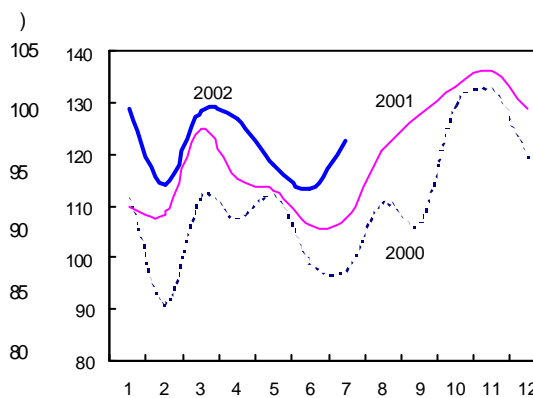
- 8월(1~28일) 성돈(100kg) 산지가격은 이동제한지역 해제와 대일수출 기대로 입식된 돼지가 출하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4.8% 하락하였음. 8월 28일 현재 평년(17만 9천원)보다 17% 하락한 14만 9천원임.
- 9월 사육두수는 성돈 산지가격의 하락과 질병관리의 어려움으로 현재 규모를 유지하려는 의향이 높아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한 890만두로 전망됨. 10~12월 산지가격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출하두수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1만원정도 낮은 14만 5천원~15만 5천원으로 전망됨.

<돼지 총두수와 모돈수>



자료 : 농림부, 가축통계('02, 6월은 관측센터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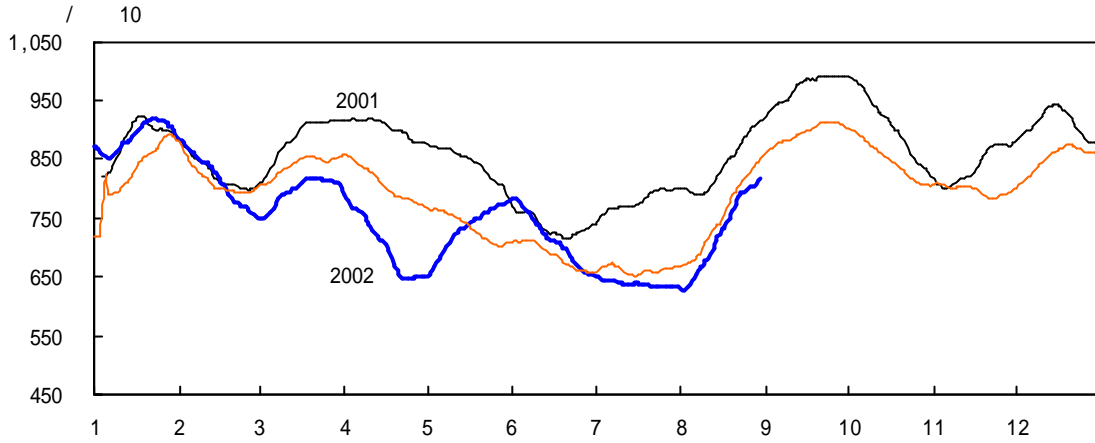
<월별 도축두수>



자료: 농림부.

마.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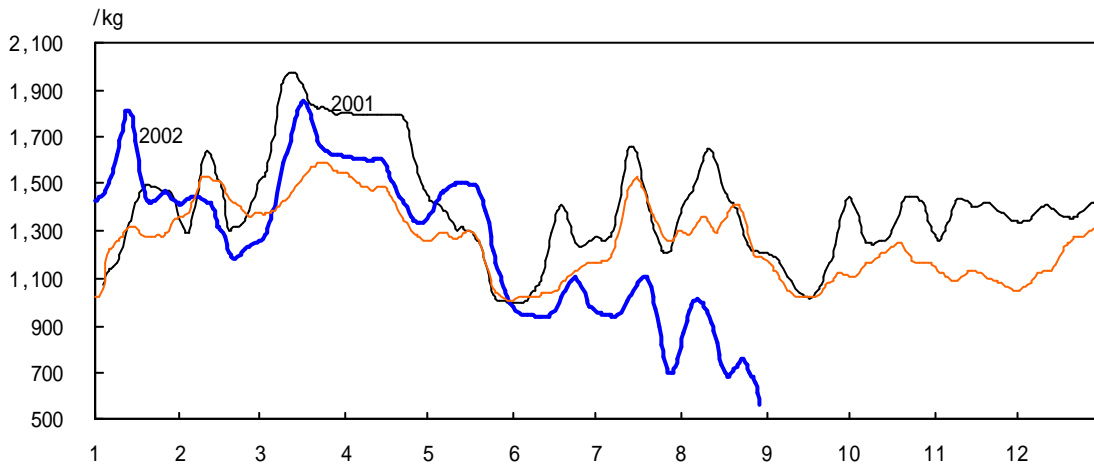
<계란 산지가격>



주: 5일이동평균가격.

- 8월 계란가격(1~28일)은 공급물량의 증가와 소비감소로 전년동기보다 하락한 717원(특란 10개)이었음. 9월 계란가격도 공급물량 증가로 전년동기(973원)보다 하락한 750~85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10~12월 계란가격은 전년 동기간(908원)보다 하락한 700~8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육계 산지가격>



주: 5일이동평균가격.

- 8월 육계산지가격(1~27일)은 도계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보다 43.0% 하락한 kg당 827원이었음. 9월 산지가격도 도계물량 증가로 인하여 전년동기(1,144원)보다 하락한 kg당 800~9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IV. 지역 언론 보도 내용

<지방일간지 23종에 보도된 8월중 농업관련 주요 이슈>

■ 보도 개황

- 8월초부터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농작물 침수 피해 소식이 잇따른 가운데, 특히, 경남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 농민들은 농작물 침수피해가 허술한 농업인프라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했고, 언론들도 '농업재해보상법'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보도가 다수 있었음. 또, 정부가 도시자본 농촌유입을 목적으로 '농촌투자유치센터'를 설치하고 한계농지 등의 개발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 각 지역에서는 토지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무분별한 농지개발과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 이와 함께, 마늘협상 파문에 대해 농민들은 여전히 협상 백지화와 마늘농가 보호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마늘산업경쟁력 제고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고, 쌀 추수기가 다가오면서 각지역 RPC를 중심으로 재고가 넘쳐 창고 부족으로 추곡수매 차질을 우려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 또, 농축산물 브랜드 난립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고추값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가격파동'이 우려된다는 여론도 전북지역을 비롯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다수 취급되었음.

□ 농경지 침수 피해…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 8월4일부터 열흘간 집중호우가 내려 전국적으로 3만3천여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가축들이 폐사하는 등 농업분야 피해 소식이

잇따라 보도된 가운데, 각 지역 농업인들은 농작물 피해가 수리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 허술한 농업 인프라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 한편, 현행 농어업피해대책법은 보상비중 농가부담이 40~60%에 이를 정도로 높고, 첨단농업시설은 복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실비 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함.

□ 한계농지 수요 증가...부작용 우려 목소리

- 정부가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목적으로 한계농지 개발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자 경기와 충북지방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가격이 이전보다 10%선까지 오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한계농지 개발로 농촌 투기 및 난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철원군은 한탄강주변 농업진흥지역까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림부에 해제를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농지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마늘파동 대응책 부심

- 한·중 마늘협상 파문으로 농민들이 여전히 협상 백지화, 세이프가드 연장 요구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충북 단양마늘시험장에서는 '마늘양갱' '스프링 마늘' 등 다양한 마늘 상품개발에 나섰고, 충남도는 종자개선과 유통센터 설치 등에 3년간 41억원을 지원키로했으며, 전남 고흥군은 토종 육쪽마늘 재배를 확대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 또, 지역언론들은 이번 파문으로 마늘농가의 피해와 함께 대체작물의 홍수로 타작물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공산품 수출 이익금 일부를 농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전북도민일보> 등 일부 언론은 WTO체제하에서 특별한대책이나 조치로 농산물을 계속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 양곡창고 부족, 수매차질 우려

- 최근 재고쌀 사료화 등 추수기 이전 4백만섬 처리 방안이 나오고 대북지원 재개 가능성도 시사되는 등 재고쌀 처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달에도 전북과 경남지역에서 올 수추기에 양곡보관 창고가 크게 부족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북지역에서만 19만톤 등 상당물량 양곡의 야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 강원지역의 10개 RPC에서 8월말까지 처분해야할 쌀이 1만5천톤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천2백톤이나 많아 상반기에만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들이 양곡구매 전용카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남지역에서도 RPC 보관능력은 82만톤 정도에 불과하나 현재 62만톤이 보관돼 있어 올 수확기에 47만톤은 ‘야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재고쌀 처분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재고쌀 증가에 따른 수매차질을 우려하는 보도가 증가하고 있음.

□ 농축산물 브랜드 ‘양보다 질로’ 개선 여론

- 전북지역에서는 브랜드 쌀만 1개 RPC에 7~8개에 달하는 등 전체

1백97개에 이르는데 이중 91%는 품질인증도 없이 유통되고 있어 인지도 확보 차질 등 제값 받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반면, 경기지역에서는 지자체와 회원농협,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18개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등 지역언론에는 최근 농산물 브랜드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브랜드로 지역 고유 이미지를 통일하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고추 '가격파동' 우려

- 충북과 전북 등 고추 주산지에서는 재배면적이 늘고 작황도 양호한데다 수입물량까지 늘면서 가격이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폭락, '고추 파동'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었으나, 경북지방에서 8월 중순 가격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고추가격 폭락세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돼지·닭 등 축산물값 전반적 약세

- 돼지와 닭값의 폭락 소식도 집중적으로 취급된 가운데, 경기지역 구제역 해제로 돼지의 홍수 출하 및 소비 부진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1kg 산지 출하가격이 1천4백원 선으로 생산비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보도가 있었음. 또, 경남지역에서는 계란 소비부진과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해 지난해말 보다 28%나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북지역에서는 육계값이 kg당 7백원대에 그치면서 생산비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돼지와 계란, 육계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